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Antoine de Saint-Exupery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송태호 옮김.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아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내게는 그럴만 한 각별한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이야말로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동 도서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정은 이렇다. 이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의 그에게 이 책을 바치겠노라. 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아이였으니까. (하 기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노라.

어린아이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I

여섯 살 시절 나는 『모험기』라는 제목의 원시림 이야기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삼키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 본 것이다.

TO LEON WERTH

I ask the indulgence of the children who may read this book for dedicating it to a grown-up. I have a serious reason: he is the best friend I have in the world. I have another reason: this grown-up understands everything, even books about children. I have a third reason: he lives in France where he is hungry and cold. He needs cheering up.

If all these reasons are not enough, I will dedicate the book to the child from whom this grown-up grew. All grown-ups were once children — although few of them remember it. And so I correct my dedication:

TO LEON WERTH WHEN HE WAS A LITTLE BOY.

I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I saw a magnificent picture in a book,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about the primeval forest.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in the act of swallowing an animal. Here is a copy of the drawing.

## The Little Prince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꼼짝달싹 못 한 채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만 잔다.”

In the book it said: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it. After that they are not able to move, and they sleep through the six months that they need for digestion.”

그래서 정글 속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혼자서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 그림 1호는 이러했다.

I pondered deeply, then, over the adventures of the jungle. And after some work with a colored pencil I succeeded in making my first drawing. My Drawing Number One. It looked something like this: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었다.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and asked them whether the drawing frightened them.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But they answered: “Frighten? Why should any one be frightened by a hat?”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뱀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of a hat.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digesting an elephant. But since the grown-up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t, I made another drawing: I drew the inside of a boa constrictor, so that the grown-ups could see it clearly. They always need to have things explained. My Drawing Number Two looked like this:

## 어린 왕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아 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이런 연유로 그만 나는 나이 여섯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1호와 그림 2호의 실패로 그만기가 꺾인 탓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 아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기에 비행기 모는 법을 배웠다. 거의 안가본 데 없이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진정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리는 정말 쓸모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견해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어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 헤안을 지녔는지 알고 싶었다.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me to lay aside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s,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and devote myself instead to geography, history, arithmetic, and grammar. That is why, at the age of six, I gave up what might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as a painter.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One and my Drawing Number Two. Grown-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by themselves, and it is tiresome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So then I chose another profession, and learned to pilot airplanes. I have flown a little over all parts of the world; and it is true that geography has been very useful to me.

At a glance I can distinguish China from Arizona. If one gets lost in the night, such knowledge is valuable.

In the course of this life I have had a great many encounters with a great many people who have been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I have lived a great deal among grown-ups. I have seen them intimately, close at hand. And that hasn't much improved my opinion of them.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I tried the experiment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which I have always kept. I would try to find out, so, if this was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 The Little Prince

하지만 언제나 돌아온 답은 ‘어, 모자잖아’였다.

그러면 나는 보아 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 수준에 맞게 말을 꺼냈다. 트럼프,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무척 만족스러워 했다...

## II

나는 이렇게 진심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 육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도.

엔진 내부 어딘가가 파손되어 기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서 어려운 수리에 나선 참이었다.

나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물도 겨우 일주일 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첫날밤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수면을 취했다. 대양 한 가운데 난파당해 표류하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상 야릇한 꼬마목소리에 깨어난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뭐라고?”

But, whoever it was, he, or she, would always say: “That is a hat.”

Then I would never talk to that person about boa constrictors, or primeval forests, or stars. I would bring myself down to his level. I would talk to him about bridge, and golf, and politics, and neckties. And the grown-up would be greatly pleased to have met such a sensible man.

## II

So I lived my life alone, without anyone that I could really talk to, until I had an accident with my plane in the Desert of Sahara, six years ago.

Something was broken in my engine. And as I had with me neither a mechanic nor any passengers, I set myself to attempt the difficult repairs all alone.

It was a question of life or death for me: I had scarcely enough drinking water to last a week.

The first night, then, I went to sleep on the sand, a thousand miles from any human habitation. I was more isolated than a shipwrecked sailor on a raft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us you can imagine my amazement, at sunrise, when I was awakened by an odd little voice. It said:

“If you please — draw me a sheep!”

“What!”

## 어린 왕자

“양 한 마리 그려 달라니까...”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열심히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범상치 않은 모습의 어떤 어린 녀석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다.

“Draw me a sheep!”

I jumped to my feet, completely thunderstruck. I blinked my eyes hard. I looked carefully all around me. And I saw a most extraordinary small person, who stood there examining me with great seriousness.

Here you may see the best portrait that, later, I was able to make of him.



그러나 당연히 내 그림은 모 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 때 어른들 때문에 기가 꺾여 화가로서의 내 직업에서 멀어져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뱀 말고는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유령처럼 출현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라. 그런데 녀석은 길을 잃었다거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았다.

But my drawing is certainly very much less charming than its model. That, however, is not my fault. The grown-ups discouraged me in my painter's career when I was six years old, and I never learned to draw anything, except boas from the outside and boas from the inside.

Now I stared at this sudden apparition with my eyes fairly starting out of my head in astonishment. Remember, I had crashed in the desert a thousand miles from any inhabited region. And yet my little man seemed neither to be straying uncertainly among the sands, nor to be fainting from fatigue or hunger or thirst or fear.

## The Little Prince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서 길을 잃은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으니까. 마침내 겨우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여기서 뭐 하니?”

그러자 그는 매우 진지한 이야기라도 하듯이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저씨...양 한 마리만 그려 줘...”

신비로움이 너무 강렬하면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과 대면한 처지 치고는 영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분이 언짢아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녀석에게 털어놨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한 번도 양을 그려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다시 그려 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뱀 그림을 말이다.

그러자 녀석은, “아니, 아니, 보아 뱀 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 뱀은 무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 사는 곳은 아주 좁아.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 줘!”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렸다.

Nothing about him gave any suggestion of a child lost in the middle of the desert, a thousand miles from any human habitation. When at last I was able to speak, I said to him:

“But — what are you doing here?”

And in answer he repeated, very slowly, as if he were speaking of a matter of great consequence:

“If you please — draw me a sheep...”

When a mystery is too overpowering, one dare not disobey. Absurd as it might seem to me, a thousand miles from any human habitation and in danger of death, I took out of my pocket a sheet of paper and my fountain-pen.

But then I remembered how my studies had been concentrated on geography, history, arithmetic and grammar, and I told the little chap (a little crossly, too) that I did not know how to draw. He answered me:

“That doesn’t matter. Draw me a sheep...”

But I had never drawn a sheep. So I drew for him one of the two pictures I had drawn so often. It was that of the boa constrictor from the outside. And I was astounded to hear the little fellow greet it with:

“No, no, no! I do not want an elephant inside a boa constrictor. A boa constrictor is a very dangerous creature, and an elephant is very cumbersome. Where I live, everything is very small. What I need is a sheep. Draw me a sheep.”

So then I made a drawing.



어린 왕자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He looked at it carefully, then he said:

“안 돼! 이건 벌써 병이 심한데. 다시 하나 그려 줘.”

“No. This sheep is already very sickly. Make me another.”

나는 또 그렸다.

So I made another drawing.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My friend smiled gently and indulgently.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숫양인 걸. 뿔이 달렸잖아...”

“You see yourself,” he said, “that this is not a sheep. This is a ram. It has horns.”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So then I did my drawing over once more.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 처럼 퇴짜를 놓는 것이 아닌가.

But it was rejected too, just like the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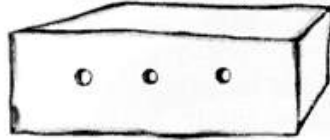
## The Little Prince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This one is too old. I want a sheep that will live a long time.”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 야 했기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대충 끼적 거려 주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By this time my patience was exhausted, because I was in a hurry to start taking my engine apart. So I tossed off this drawing.



And I threw out an explanation with it.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상자 안에 있어.”

“This is only his box. The sheep you asked for is inside.”

그러자 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I was very surprised to see a light break over the face of my young judge: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챙겨 줘야 하나?”

“That is exactly the way I wanted it! Do you think that this sheep will have to have a great deal of grass?”

“왜?”

“Why?”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Because where I live everything is very small...”

“틀림없이 충분할 거다.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깐.”

“There will surely be enough grass for him,” I said. “It is a very small sheep that I have given you.”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라! 잠들었네...”

He bent his head over the drawing.  
“Not so small that — Look! He has gone to sleep...”

이렇게 어린왕자를 알게 되었다.

And that is how I made the acquaintance of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III

III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내 질문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It took me a long time to learn where he came from. The little prince, who asked me so many questions, never seemed to hear the ones I asked him.

우연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덕분에 점차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본 그는(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려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내게 이렇게 물어 왔다.

It was from words dropped by chance that, little by little, everything was revealed to me. The first time he saw my airplane, for instance (I shall not draw my airplane; that would be much too complicated for me), he asked me:

“이 물건은 뭐야?”

“What is that object?”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거든. 비행기지. 내 비행기란다.”

“That is not an object. It flies. It is an airplane. It is my airplane.”

그리고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자 우쭐해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And I was proud to have him learn that I could fly. He cried out, then:

“뭐,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지?”

“What! You dropped down from the sky?”

“그럼.” 하고 나는 겸손하게 답했다.

“Yes,” I answered, modestly.

## The Little Prince

“아! 거참 재미있네...”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매우 멋지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내 기분은 몹시 언짢았다. 다른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받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인데?”

나는 곧바로 수수께끼 같은 그 존재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 불쑥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 이거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만 바라보며 살며 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이걸로는 그렇게 멀리서 올 수도 없었겠네...”

그러고는 한참 동안 깊이 몽상에 잠겼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 준 양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른 별들’에 관한 알 듯 말 듯 한 이야기에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애써 좀 더 알아보려고 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 집’이라니 그게 어딘데? 내 양은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게 대답했다.

“Oh! That is funny!”

And the little prince broke into a lovely peal of laughter, which irritated me very much. I like my misfortunes to be taken seriously. Then he added:

“So you, too, come from the sky! Which is your planet?”

At that moment I caught a gleam of light in the impenetrable mystery of his presence; and I demanded, abruptly:

“Do you come from another planet?”

But he did not reply. He tossed his head gently, without taking his eyes from my plane:

“It is true that on that you can't have come from very far away...”

And he sank into a reverie, which lasted a long time. Then, taking my sheep out of his pocket, he buried himself in the contemplation of his treasure.

You can imagine how my curiosity was aroused by this half-confidence about the “other planets.” I made a great effort, therefore, to find out more on this subject.

“My little man,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this ‘where I live,’ of which you speak? Where do you want to take your sheep?”

After a reflective silence he answered:

어린 왕자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 잘 됐지 뭐야.”

“The thing that is so good about the box you have given me is that at night he can use it as his house.”

“그리고 말고, 그리고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묶어 놓게 줄을 주마. 그리고 말뚝도.”

“That is so. And if you are good I will give you a string, too, so that you can tie him during the day, and a post to tie him to.”

그 제안에 어린 왕자는 황당해했다.

But the little prince seemed shocked by this offer:

“양을 묶어 놔? 참 희한한 생각이네.”

“Tie him! What a queer idea!”

“하지만 묶어 놓지 않으면 아무 데로나 가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But if you don’t tie him,” I said, “he will wander off somewhere, and get lost.”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My friend broke into another peal of laughter:

“어디로 간다는 거야?”

“But where do you think he would go?”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Anywhere. Straight ahead of him.”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Then the little prince said, earnestly:

“상관없어.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

“That doesn’t matter. Where I live, everything is so small!”

그러고는 약간은 우수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And, with perhaps a hint of sadness, he added:

“곧장 가 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해...”

“Straight ahead of him, nobody can go very far...”

## IV

이렇게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것은 그가 떠나온 별이 겨우 집 한 채 만하다는 것이었다.

## IV

I had thus learned a second fact of great importance: this was that the planet the little prince came from was scarcely any larger than a house!

## The Little Prince

이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 성, 금성같이 이름이 붙은 커다란 행성들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어떤 행성들은 너무도 작아 서 망원경으로도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 가 작은 행성을 하나 발견 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호’라 고 명명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 고 믿는 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But that did not really surprise me much. I knew very well that in addition to the great planets — such as the Earth, Jupiter, Mars, Venus — to which we have given names, there are also hundreds of others, some of which are so small that one has a hard time seeing them through the telescope.

When an astronomer discovers one of these he does not give it a name, but only a number. He might call it, for example, “Asteroid 325”.

I have seriou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lanet from which the little prince came is the asteroid known as B-612.



이 소행성을 1909년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 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다.

This asteroid has only once been seen through the telescope. That was by a Turkish astronomer, in 1909.

## 어린 왕자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 대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성대히 증명해 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어른은 언제나 그렇다.

On making his discovery, the astronomer had presented it to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Congress, in a great demonstration. But he was in Turkish costume, and so nobody would believe what he said. Grown-ups are like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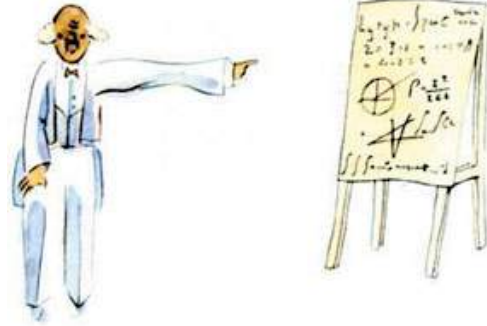
다행히도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 터키의 독재자는 백성에게 서구 의상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으름 장을 놓았다.

Fortunately, however, for the reputation of Asteroid B-612, a Turkish dictator made a law that his subjects, under pain of death, should change to European costume.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세련된 의상을 차려입고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So in 1920 the astronomer gave his demonstration all over again, dressed with impressive style and elegance. And this time everybody accepted his report.

## The Little Prince



내가 소행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번호까지 늘어놓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귀 친구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은 절대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친구 목소리는 어때? 무슨 놀이를 좋아한대? 나비 채집도 한다든?”

어른들은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니? 체 중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래?” 하고 묻는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 화분에 제라늄을 키우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는 분홍 벽돌집을 봤는 데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집이군!” 하고 외친다.

If I have told you these details about the asteroid, and made a note of its number for you, it is on account of the grown-ups and their ways.

When you tell them that you have made a new friend, they never ask you any questions about essential matters. They never say to you, “What does his voice sound like? What games does he love best? Does he collect butterflies?”

Instead, they demand: “How old is he? How many brothers has he? How much does he weigh? How much money does his father make?” Only from these figures do they think they have learned anything about him.

If you were to say to the grown-ups: “I saw a beautiful house made of rosy brick, with geraniums in the windows and doves on the roof,” they would not be able to get any idea of that house at all. You would have to say to them: “I saw a house that cost \$20,000.” Then they would exclaim: “Oh, what a pretty house that is!”



## 어린 왕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거든” 하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입니다.”라고 말하면 확실히 믿고 더는 물음을 던지며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 모양이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들에게 매우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요...”라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책이 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담을 꺼내 노라니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육년이 흘렀다. 내가 지금 그를 그리려 애쓰는 것도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게 된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를 일이다.

Just so, you might say to them: “The proof that the little prince existed is that he was charming, that he laughed, and that he was looking for a sheep. If anybody wants a sheep, that is a proof that he exists.” And what good would it do to tell them that? They would shrug their shoulders, and treat you like a child.

But if you said to them: “The planet he came from is Asteroid B-612,” then they would be convinced, and leave you in peace from their questions. They are like that. One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Children should always show great forbearance toward grown-up people.

But certainly, for us who understand life, figures are a matter of indifference. I should have liked to begin this story in the fashion of the fairy-tales. I should have like to say: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prince who lived on a planet that was scarcely any bigger than himself, and who had need of a sheep...” To those who understand life, that would have given a much greater air of truth to my story.

For I do not want any one to read my book carelessly. I have suffered too much grief in setting down these memories. Six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my friend went away from me, with his sheep. If I try to describe him here, it is to make sure that I shall not forget him.

To forget a friend is sad. Not every one has had a friend. And if I forget him, I may become like the grown-ups who are no longer interested in anything but figures...

## The Little Prince

그래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산 것이다. 여섯 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뱀 외에는 그려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가장 실물을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 한다. 그 령다고 성공을 완전히 확신 할 수도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 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은 구석이 없다.

키도 약간 어긋나 있다. 여기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기 어린 왕자는 또 너무 작다.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근근이 이래저래 더듬더듬 그려 본다.

더 중요한 세부 사항 몇몇은 틀리게 그려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점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내 친구 는 결코 설명이라곤 해 준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너 머로 양을 볼 줄 모른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 린것 같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V

하루하루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대해, 그와의 이별 에 대해, 그간의 여행에 대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잠기 다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바오밥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히기 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불쑥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It is for that purpose, again, that I have bought a box of paints and some pencils. It is hard to take up drawing again at my age, when I have never made any pictures except those of the boa constrictor from the outside and the boa constrictor from the inside, since I was six.

I shall certainly try to make my portraits as true to life as possible. But I am not at all sure of success. One drawing goes along all right, and another has no resemblance to its subject.

I make some errors, too, in the little prince's height: in one place he is too tall and in another too short. And I feel some doubts about the color of his costume. So I fumble along as best I can, now good, now bad, and I hope generally fair-to-middling.

In certain more important details I shall make mistakes, also. But that is something that will not be my fault. My friend never explained anything to me. He thought, perhaps, that I was like himself. But I, alas, do not know how to see sheep through the walls of boxes. Perhaps I am a little like the grown-ups. I have had to grow old.

V

As each day passed I would learn, in our talk, something about the little prince's planet, his departure from it, his journey. The information would come very slowly, as it might chance to fall from his thoughts. It was in this way that I heard, on the third day, about the catastrophe of the baobabs.

This time, once more, I had the sheep to thank for it. For the little prince asked me abruptly — as if seized by a grave doubt.

어린 왕자

“정말, 그렇지,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It is true, isn't it, that sheep eat little bushes?”

“그럼, 정말이지.”

“Yes, that is true.”

“아! 마침 잘됐네!”

“Ah! I am glad!”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I did not understand why it was so important that sheep should eat little bushes. But the little prince added:

“그러니까 바오밥나무도 먹는다는 거지?”

“Then it follows that they also eat baobabs?”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거대한 나무이고, 코끼리를 떼로 몰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당해 내기는 힘들 거라고 일러 주었다.

I pointed out to the little prince that baobabs were not little bushes, but, on the contrary, trees as big as castles; and that even if he took a whole herd of elephants away with him, the herd would not eat up one single baobab.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었다.

The idea of the herd of elephants made the little prince laugh.

“코끼리들을 포개 놔야겠군...”

“We would have to put them one on top of the other,” he said.



그런데 그가 총기 있게 말했다.

But he made a wise comment:

## The Little Prince

“바오밥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겠지?”

“Before they grow so big, the baobabs start out by being little.”

“그럼! 그런데 왜 네 양이 어린 바오밥나무를 먹었으면 하지?”

“That is strictly correct,” I said. “But why do you want the sheep to eat the little baobabs?”

어린 왕자는 무척 당연하다는 듯 “참! 나 이런!” 하고 답하는 것이었다.

He answered me at once, “Oh, come, come!”, as if he were speaking of something that was self-evident.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한 참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And I was obliged to make a great mental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without any assistance.

사실 다른 모든 행성에서처럼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살았다. 따라서 좋은 풀을 낳는 좋은 씨앗들과 나쁜 풀을 낳는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Indeed, as I learned, there were on the planet where the little prince lived — as on all planets — good plants and bad plants. In consequence, there were good seeds from good plants, and bad seeds from bad plants.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땅 속 깊이 숨어 잠을 잔다. 그러다 씨앗 하나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처음에는 수줍은 듯 어여쁘고 순진한 어린싹을 내민다.

But seeds are invisible. They sleep deep in the heart of the earth’s darkness, until some one among them is seized with the desire to awaken. Then this little seed will stretch itself and begin — timidly at first — to push a charming little sprig inoffensively upward toward the sun.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알아보자마자 즉시 뽑아 버려야 한다.

If it is only a sprout of radish or the sprig of a rose-bush, one would let it grow wherever it might wish. But when it is a bad plant, one must destroy it as soon as possible, the very first instant that one recognizes it.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다...바오밥나무 씨앗들이었다. 그 행성의 토양은 바오밥나무 씨앗 투성이였다.

Now there were some terrible seeds on the planet that was the home of the little prince; and these were the seeds of the baobab. The soil of that planet was infested with them.

## 어린 왕자

그런데 바오밥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제거 불능 상태가 된다. 행성 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 뿌리들이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행성은 너무 작는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급기야 행성이 터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규율의 문제라고나 할까.”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아침 세수를 마치면 정성껏 별을 돌봐야 해. 장미와 구별 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그 바오밥나무를 반드시 솎아 내야 하거든. 아주 어린 바오밥나무는 정말 장미를 닮았어. 아주 성가신 일이지만 아주 쉬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지구에 사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만한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 보라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A baobab is something you will never, never be able to get rid of if you attend to it too late. It spreads over the entire planet. It bores clear through it with its roots. And if the planet is too small, and the baobabs are too many, they split it in pieces...

“It is a question of discipline,” the little prince said to me later on. “When you’ve finished your own toilet in the morning, then it is time to attend to the toilet of your planet, just so, with the greatest care. You must see to it that you pull up regularly all the baobabs, at the very first moment when the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rosebushes which they resemble so closely in their earliest youth. It is very tedious work,” the little prince added, “but very easy.”

And one day he said to me: “You ought to make a beautiful drawing, so that the children where you live can see exactly how all this is.



## The Little Prince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한다면 그 그림이 도움될 거야. 때로는 할 일을 뒤로 미뤄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나무는 그랬다가는 언제나 엄청난 재난이지.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알고 있었어. 그는 키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가 하라는 대로 그 행성을 그려 보았다. 나는 도덕군자의 말투를 싫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너무 모르고 있어, 소행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겪을 위험이 너무 크기에 처음으로 나의 금기를 깨고

“어린이들이여! 바오밥나무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나처럼 어린이들도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내가 전하는 교훈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That would be very useful to them if they were to travel some day. Sometimes,” he added, “there is no harm in putting off a piece of work until another day. But when it is a matter of baobabs, that always means a catastrophe. I knew a planet that was inhabited by a lazy man. He neglected three little bushes...”

So, as the little prince described it to me, I have made a drawing of that planet. I do not much like to take the tone of a moralist. But the danger of the baobabs is so little understood, and such considerable risks would be run by anyone who might get lost on an asteroid, that for once I am breaking through my reserve.

“Children,” I say plainly, “watch out for the baobabs!” My friends, like myself, have been skirting this danger for a long time, without ever knowing it; and so it is for them that I have worked so hard over this drawing. The lesson which I pass on by this means is worth all the trouble it has cost me.

## 어린 왕자



어쩌면 당신은 “왜 이 책에는 바오밥나무 그림만큼 장엄한 다른 그림들은 없는 걸까?” 하며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실패했다. 바오밥나무를 그릴 당시에는 절박감에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Perhaps you will ask me, “Why are there no other drawing in this book as magnificent and impressive as this drawing of the baobabs?” The reply is simple. I have tried. But with the others I have not been successful. When I made the drawing of the baobabs I was carried beyond myself by the inspiring force of urgent necessity.

## VI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너의 단출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 오랫동안 네 위안거리는 석양을 보는 감미로움뿐이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석양이 정말 좋아. 가서 석양 보자...”

## VI

Oh, little prince! Bit by bit I came to understand the secrets of your sad little life... For a long time you had found your only entertainment in the quiet pleasure of looking at the sunset. I learned that new detail on the morning of the fourth day, when you said to me:

“I am very fond of sunsets. Come, let us go look at a sunset now.”

## The Little Prince

“그러려면 기다려야지...”

“But we must wait,” I said.

“뭘 기다려?”

“Wait? For what?”

“석양을 기다려야지.”

“For the sunset. We must wait until it is time.”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지. 그러다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게 말했지.

At first you seemed to be very much surprised. And then you laughed to yourself. You said to me: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

“I am always thinking that I am at home!”

실제로 그래.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 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지지. 일본 내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련만,

Just so. Everybody knows that when it is noon in the United States the sun is setting over France. If you could fly to France in one minute, you could go straight into the sunset, right from noon.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행성에서야 의자를 몇 걸음 당기면 되었지. 그래서 언 제고 네가 원하면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Unfortunately, France is too far away for that. But on your tiny planet, my little prince, all you need do is move your chair a few steps. You can see the day end and the twilight falling whenever you like...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마흔네 번이나 봤어!”

“One day,” you said to me, “I saw the sunset forty-four times!”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말했지.

And a little later you added:

“아저씨도 알지...몹시 슬퍼지면 석양이 좋아져...”

“You know — one loves the sunset, when one is so sad...”

“마흔네 번 본 석양을 본 날은 그만큼 슬펐겠구나?”

“Were you so sad, then?” I asked, “on the day of the forty-four sunsets?”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지.

But the little prince made no reply.



어린 왕자



VII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불쑥 내게 물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골몰해 오던 어떤 문제의 결실인 듯 말이다.

“양이 키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지.”

“가시 달린 꽃도?”

“그럼, 가시 달린 꽃도.”

“그럼 가시는 왜 달려 있는데?”

VII

On the fifth day — again, as always, it was thanks to the sheep — the secret of the little prince’s life was revealed to me. Abruptly, without anything to lead up to it, and as if the question had been born of long and silent meditation on his problem, he demanded:

“A sheep — if it eats little bushes, does it eat flowers, too?”

“A sheep,” I answered, “eats anything it finds in its reach.”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Yes,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Then the thorns — what use are they?”

## The Little Prince

나는 몰랐다. 그때 나는 내 엔진에 너무 꼭 죄어 있는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물도 동이나 최악의 상태가 우려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가시는 왜 달려 있는 거냐고?”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괜히 있는 거야. 꽃이 괜히 심통 부리는 거지.”

“아!”

그러나 잠시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나에게 앙갚음하듯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을 믿으라고? 꽃은 약해. 순진하기도 하고. 나름 자신을 지켜 내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지, 가시가 있으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끝내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숴야지.”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심각한 일로 바쁘거든!”

I did not know. At that moment I was very busy trying to unscrew a bolt that had got stuck in my engine. I was very much worried, for it was becoming clear to me that the breakdown of my plane was extremely serious. And I had so little drinking-water left that I had to fear for the worst.

“The thorns — what use are they?”

The little prince never let go of a question, once he had asked it. As for me, I was upset over that bolt. And I answered with the first thing that came into my head:

“The thorns are of no use at all. Flowers have thorns just for spite!”

“Oh!”

There was a moment of complete silence. Then the little prince flashed back at me, with a kind of resentment:

“I don’t believe you! Flowers are weak creatures. They are naïve. They reassure themselves as best they can. They believe that their thorns are terrible weapons...”

I did not answer. At that instant I was saying to myself: “If this bolt still won’t turn, I am going to knock it out with the hammer.” Again the little prince disturbed my thoughts:

“And you actually believe that the flowers — ”

“Oh, no!” I cried. “No, no, no! I don’t believe anything. I answered you with the first thing that came into my head. Don’t you see — I am very busy with matters of consequence!”

어린 왕자

깜짝 놀란 그가 나를 쏘아보았다.

He stared at me, thunderstruck.

“심각한 일이라고?”

“Matters of consequence!”

시커먼 기름투성이 손가락으로 망치를 손에 든 채, 매우 지저분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

He looked at me there, with my hammer in my hand, my fingers black with engine-grease, bending down over an object which seemed to him extremely ugly...

“꼭 어른처럼 말하네!”

“You talk just like the grown-ups!”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매정했다.

That made me a little ashamed. But he went on, relentlessly: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You mix everything up together... You confuse everything...”

그는 정말 뿔이 잔뜩 나 있었다. 진한 금발이 바람에 흩날 리고 있었다.

He was really very angry. He tossed his golden curls in the breeze.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시뻘건 신사가 하나 살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 본 적이 없어. 별 하나 바라본 적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지. 계산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거든. 그래서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심각한 사람이 야! 심각한 사람이라고!’ 되뇌지. 그래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I know a planet where there is a certain red-faced gentleman. He has never smelled a flower. He has never looked at a star. He has never loved any one. He has never done anything in his life but add up figures. And all day he says over and over, just like you: ‘I am busy with matters of consequence!’ And that makes him swell up with pride. But he is not a man — he is a mushroom!”

“뭐라고?”

“A what?”

“버섯이라니까!”

“A mushroom!”

어린 왕자의 얼굴은 너무 심한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The little prince was now white with 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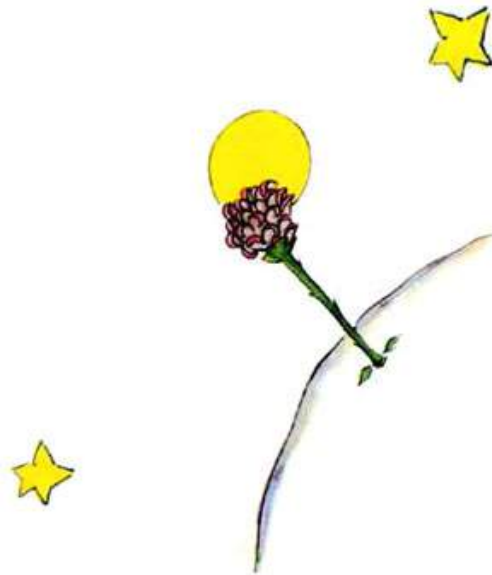
## The Little Prince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그 꽃을 먹어 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 쓸모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왜 그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양과 꽃들의 전쟁이 별 거 아니라고? 얼굴이 벌건 뚱뚱한 아저씨가 하는 덧셈이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내 행성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새끼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단 숨에 그걸 먹어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The flowers have been growing thorns for millions of years. For millions of years the sheep have been eating them just the same. And is it not a matter of consequence to try to understand why the flowers go to so much trouble to grow thorns which are never of any use to them? Is the warfare between the sheep and the flowers not important? Is this not of more consequence than a fat red-faced gentleman’s sums?”

And if I know — I, myself — one flower which is unique in the world, which grows nowhere but on my planet, but which one little sheep can destroy in a single bite some morning, without even noticing what he is doing — Oh! You think that is not important!”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His face turned from white to red as he continued:

## 어린 왕자

“누군가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는 홀로 말하겠지.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다고...’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 버린다?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꺼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별안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개의치 않았다. 어떤 별, 어떤 행성, 내 행성인 지구에 달려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에 안아 주었다. 그를 조용히 흔들며 달래 주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양의 입에 부리 망을 하나 그려 줄게...꽃을 위해서는 갑옷도 그려 주고... 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 자신이 무척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에게 다다를지, 어디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을지...나는 알 수 없었다...그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눈물의 나라!

## VIII

나는 곧 그 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아주 단순한 꽃들이 있었다. 홑꽃잎을 두른 이 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자취를 감추곤 했다.

“If some one loves a flower, of which just one single blossom grows in all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stars, it is enough to make him happy just to look at the stars. He can say to himself, ‘Somewhere, my flower is there...’ But if the sheep eats the flower, in one moment all his stars will be darkened... And you think that is not important!”

He could not say anything more. His words were choked by sobbing. The night had fallen. I had let my tools drop from my hands. Of what moment now was my hammer, my bolt, or thirst, or death? On one star, one planet, my planet, the Earth, there was a little prince to be comforted. I took him in my arms, and rocked him. I said to him:

“The flower that you love is not in danger. I will draw you a muzzle for your sheep. I will draw you a railing to put around your flower. I will — ”

I did not know what to say to him. I felt awkward and blundering. I did not know how I could reach him, where I could overtake him and go on hand in hand with him once more. It is such a secret place, the land of tears.

## VIII

I soon learned to know this flower better. On the little prince’s planet the flowers had always been very simple. They had only one ring of petals; they took up no room at all; they were a trouble to nobody. One morning they would appear in the grass, and by night they would have faded peacefully away.

## The Little Prince

하지만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 온 씨앗에서 어느 날 바로 그 꽃이 싹을 틔웠다. 그래서 어린 왕 자는 다른 싹들을 닮지 않은 그 싹을 매우 가까이서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나무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키 작은 나무는 이내 성장을 멈추고 꽃 피울 준비를 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랗게 뻗어 가는 꽃망울을 지켜보다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 직감하였다. 그러나 꽃은 초록 봉오리 안에 숨어 미모를 다듬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색깔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온통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렇다. 정말로 교태를 부리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화장을 그래서 며칠이나 지속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바로 해돋이 시각에 드디어 그 꽃이 자태를 드러냈다.

But one day, from a seed blown from no one knew where, a new flower had come up; and the little prince had watched very closely over this small sprout which was not like any other small sprouts on his planet. It might, you see, have been a new kind of baobab.

The shrub soon stopped growing, and began to get ready to produce a flower. The little prince, who was present at the first appearance of a huge bud, felt at once that some sort of miraculous apparition must emerge from it. But the flower was not satisfied to complete the preparations for her beauty in the shelter of her green chamber.

She chose her colors with the greatest care. She dressed herself slowly. She adjusted her petals one by one. She did not wish to go out into the world all rumpled, like the field poppies. It was only in the full radiance of her beauty that she wished to appear. Oh, yes! She was a coquettish creature!

And her mysterious adornment lasted for days and days. Then one morning, exactly at sunrise, she suddenly showed herself.



그런데 것처럼 정성스레 화장했던 그 꽃이 하품을 해대며 이렇게 말을 걸어 왔다.

And, after working with all this painstaking precision, she yawned and said:

## 어린 왕자

“아! 이제 겨우 일어났네요....미안해요...여태 머리가 온 통 헝클어져 있어서요...”

“Ah! I am scarcely awake. I beg that you will excuse me. My petals are still all disarranged...”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

But the little prince could not restrain his admiration:

“참 아름다우시네요!”

“Oh! How beautiful you are!”

“그래요? 그러니까 난 해 와 함께 태어난 거죠...”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Am I not?” the flower responded, sweetly. “And I was born at the same moment as the sun...”

어린 왕자는 이 꽃이 너무 겸손하지 않음을 간파했다. 그래도 이 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으니!

The little prince could guess easily enough that she was not any too modest — but how moving — and exciting — she was!

곧이어 꽃이 말을 이었다.

“I think it is time for breakfast,” she added an instant later. “If you would have the kindness to think of my needs...”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제 생각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와 꽃에 물을 주었다.

And the little prince, completely abashed, went to look for a sprinkling-can of fresh water.



## The Little Prince

그렇게 꽃은 얼마 되지도 않아 약간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몸에 난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들먹거리며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으로 덤벼들어도 괜찮아요!”

So, he tended the flower. So, too, she began very quickly to torment him with her vanity — which was, if the truth be known, a little difficult to deal with. One day, for instance, when she was speaking of her four thorns, she said to the little prince:

“Let the tigers come with their claws!”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풀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저는 풀이 아니거든요.”

“미안하네요...”

“호랑이 따윈 전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딱 질색이에요. 바람막이 있어요?”

“There are no tigers on my planet,” the little prince objected. “And, anyway, tigers do not eat w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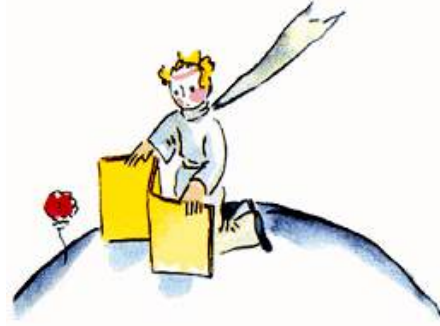
“I am not a weed,” the flower replied, sweetly.

“Please excuse me...”

“I am not at all afraid of tigers,” she went on, “but I have a horror of drafts. I suppose you wouldn’t have a screen for me?”



##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람은 질 색이라...식물로 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걸.”

“A horror of drafts — that is bad luck, for a plant,” remarked the little prince, and added to himself, “This flower is a very complex creature...”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 주세요. 당신 사는 곳은 매우 춥군요. 잘 못 내려 앉았나 봐요. 내가 떠나온 곳은...”

“At night I want you to put me under a glass globe. It is very cold where you live. In the place I came from — ”



그러나 꽃은 말을 잊지 못했다. 꽃은 씨앗의 형태로 왔었으니까. 다른 세상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꽃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 두 세 번 콜록거렸다.

But she interrupted herself at that point. She had come in the form of a seed. She could not have known anything of any other worlds. Embarrassed over having let herself be caught on the verge of such a naïve untruth, she coughed two or three times, in order to put the little prince in the wrong.

“바람막이는요? ...”

“The screen?”

“막 찾으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걸었잖아요!”

“I was just going to look for it when you spoke to me...”

## The Little Prince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가 가책을 느끼도록 더 심하게 콜록거렸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사랑에서 우려나온 호의에도 그만 그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참으로 불행을 산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꽃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절대 안 돼. 바라보고 향내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 롭게 했지. 그런데도 그 기쁨을 누릴 줄 몰랐다니. 나를 짜증나게 한 그 발톱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야 했는데...”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꽃을 판단했어야 해.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가려진 다정함을 알아챘어야 했어. 꽃이란 정말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나 봐.”

Then she forced her cough a little more so that he should suffer from remorse just the same.

So the little prince, in spite of all the good will that was inseparable from his love, had soon come to doubt her. He had taken seriously words which were without importance, and it made him very unhappy.

“I ought not to have listened to her,” he confided to me one day. “One never ought to listen to the flowers. One should simply look at them and breathe their fragrance. Mine perfumed all my planet. But I did not know how to take pleasure in all her grace. This tale of claws, which disturbed me so much, should only have filled my heart with tenderness and pity.”

And he continued his confidences:

“The fact is that I did not know how to understand anything! I ought to have judged by deeds and not by words. She cast her fragrance and her radiance over me. I ought never to have run away from her... I ought to have guessed all the affection that lay behind her poor little stratagems. Flowers are so inconsistent! But I was too young to know how to love her ...”

어린 왕자

IX

IX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떠났을 것 같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기 행성을 깨끗이 정돈했다. 활동 중인 화산 분화구도 정성껏 청소했다. 행성에는 두 개의 화산이 활동하고 있었다. 아침밥을 데우는 데는 제격이었다.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꺼진 화산도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를 잘 해 놓으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화산을 청소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존재다. 그러니 화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I believe that for his escape he took advantage of the migration of a flock of wild birds. On the morning of his departure he put his planet in perfect order. He carefully cleaned out his active volcanoes. He possessed two active volcanoes; and they were very convenient for heating his breakfast in the morning.

He also had one volcano that was extinct. But, as he said, “One never knows!” So he cleaned out the extinct volcano, too. If they are well cleaned out, volcanoes burn slowly and steadily, without any eruptions. Volcanic eruptions are like fires in a chimney.

On our earth we are obviously much too small to clean out our volcanoes. That is why they bring no end of trouble upon us.

##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또 약간은 우울한 기분으로 새로 올라온 바오 밥나무의 싹들을 뽑아 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따라 그 친숙한 작업 모두가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주려는 순간 그만 울고 싶어졌다.

그는 꽃에게 말했다. “잘 있어.”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다.

그가 되풀이했다. “잘 있으라고.”

꽃은 콜록거렸다. 하지만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The little prince also pulled up, with a certain sense of dejection, the last little shoots of the baobabs. He believed that he would never want to return. But on this last morning all these familiar tasks seemed very precious to him.

And when he watered the flower for the last time, and prepared to place her under the shelter of her glass globe, he realized that he was very close to tears.

“Goodbye,” he said to the flower.

But she made no answer.

“Goodbye,” he said again.

The flower coughed. But it was not because she had a cold.

## 어린 왕자

이윽고 꽃이 말했다. “내가 바보였나 봐. 용서해 줘. 부디 행복해야 해.”

“I have been silly,” she said to him, at last. “I ask your forgiveness. Try to be happy...”

구짖는 기색이 없어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는 유리뿔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침착한 다정함을 이해 할 수 없었다.

He was surprised by this absence of reproaches. He stood there all bewildered, the glass globe held arrested in mid-air. He did not understand this quiet sweetness.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널 사랑해. 그것도 몰라주고, 내 탓이지. 상관 없어.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었지. 부디 행복해야 해...유 리뿔개는 내버려 둬. 이젠 필요 없으니까.”

“Of course I love you,” the flower said to him. “It is my fault that you have not known it all the while. That is of no importance. But you — you have been just as foolish as I. Try to be happy... Let the glass globe be. I don’t want it any more.”

“그래도 바람이 불면...”

“But the wind — ”

“심한 감기는 아냐...신선한 밤 공기는 몸에 좋을 거야. 나는 한 송이 꽃이니까.”

“My cold is not so bad as all that... The cool night air will do me good. I am a flower.”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But the animals — ”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 내야지. 나비는 참으로 아름다운가 봐. 나비 말고 누가 나를 찾아 주겠 어? 너는 멀리 가 있겠지. 덩치 큰 놈들은 두렵지 않아. 발톱이 있으니까.”

“Well, I must endure the presence of two or three caterpillars if I wish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 butterflies. It seems that they are very beautiful. And if not the butterflies — and the caterpillars — who will call upon me? You will be far away... As for the large animals — I am not at all afraid of any of them. I have my claws.”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가시 네 개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And, naïvely, she showed her four thorns. Then she added:

“그렇게 우물거리지 마. 짜증 나. 떠나기로 했잖아. 어서 가 봐.”

“Don’t linger like this. You have decided to go away. Now go!”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서 하는 말이었다. 그토록 잘난 꽃이었던 것이다...

For she did not want him to see her crying. She was such a proud flower.

## The Little Prince

X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찾고 가르침도 구할 겸 해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느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별점 무늬가 있는 흰 담비 모피 망토를 걸치고 매우 소박하 면서도 위엄이 풍기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X

He found himself in the neighborhood of the asteroids 325, 326, 327, 328, 329, and 330. He began, therefore, by visiting them, in order to add to his knowledge.

The first of them was inhabited by a king. Clad in royal purple and ermine, he was seated upon a throne which was at the same time both simple and majestic.



“오, 신하가 하나 오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의아스러웠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Ah! Here is a subject,” exclaimed the king, when he saw the little prince coming.

And the little prince asked himself: “How could he recognize me when he had never seen me before?”

## 어린 왕자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왕에겐 만인이 신하인 것이다.

He did not know how the world is simplified for kings. To them, all men are subjects.

“짐이 그대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오너라.” 누군가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지니게 된 왕이 말했다.

“Approach, so that I may see you better,” said the king, who felt consumingly proud of being at last a king over somebody.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그 별은 온통 화려한 흰 담비 모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해져 하품을 해댔다.

The little prince looked everywhere to find a place to sit down; but the entire planet was crammed and obstructed by the king’s magnificent ermine robe. So he remained standing upright, and, since he was tired, he yawned.

왕이 말했다. “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결례이니라. 하품을 금하노라.”

“It is contrary to etiquette to yawn in the presence of a king,” the monarch said to him. “I forbid you to do so.”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으로 잠을 못 잤거든요...”

“I can’t help it. I can’t stop myself,” replied the little prince, thoroughly embarrassed. “I have come on a long journey, and I have had no sleep...”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명하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지도 여러 해 되었구나. 하품도 짐에게는 신기하도다. 자! 또 하품을 하라. 어명이니라.”

“Ah, then,” the king said. “I order you to yawn. It is years since I have seen anyone yawning. Yawns, to me, are objects of curiosity. Come, now! Yawn again! It is an order.”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니...하품이 안 나오네요...”

“That frightens me... I cannot, any more...” murmured the little prince, now completely abashed.

왕이 대답했다. “흠! 흠! 그렇다면 짐이...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Hum! Hum!” replied the king. “Then I — I order you sometimes to yawn and sometimes to — ”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왕은 화난 기색이었다.

He sputtered a little, and seemed vexed.

## The Little Prince

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항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매우 선해서 지당한 명령을 내렸다.

For what the king fundamentally insisted upon was that his authority should be respected. He tolerated no disobedience. He was an absolute monarch. But, because he was a very good man, he made his orders reasonable.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약에 짐이 어느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겠지. 그건 짐의 잘못이리라.”

“If I ordered a general,” he would say, by way of example, “if I ordered a general to change himself into a sea bird, and if the general did not obey me, that would not be the fault of the general. It would be my fault.”

“앉아도 돼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May I sit down?” came now a timid inquiry from the little prince.

“짐은 네가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 망토 자락을 위엄 있게 걷어 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I order you to do so,” the king answered him, and majestically gathered in a fold of his ermine mantle.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은 아주 조그마 했다. 도대체 왕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But the little prince was wondering... The planet was tiny. Over what could this king really rule?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 한 가지 여쭙어도 좋을까요? ...”

“Sire,” he said to him, “I beg that you will excuse my asking you a question — ”

“짐은 네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I order you to ask me a question,” the king hastened to assure him.

“폐하...폐하는 무엇을 다스리나요?”

“Sire — over what do you rule?”

왕이 매우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Over everything,” said the king, with magnificent simplicity.

“모든 것들요?”

“Over everything?”

왕은 위엄 있게 자신의 별과 다른 모든 별과 행성을 가리켰다.

The king made a gesture, which took in his planet, the other planets, and all the stars.



##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모든 별을요?”

“Over all that?” asked the little prince.

왕이 대답했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리노  
라...”

“Over all that,” the king answered.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 군주이  
기도 했던 것이다.

For his rule was not only absolute: it was also  
universal.

“그럼 별들도 폐하께 복종하나요?”

“And the stars obey you?”

왕이 말했다. “당연하지. 즉각 복종하노라.  
불복종은 용서치 않노라.”

“Certainly they do,” the king said. “They obey  
instantly. I do not permit insubordination.”

어린 왕자는 그러한 대단한 권력에 경탄했  
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  
자를 끌어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마흔네  
번이 아니라, 일흔두 번이라도, 아니 백 번  
이라도, 이 백 번이라도 석양을 볼 수 있었  
을 텐데!

Such power was a thing for the little prince to  
marvel at. If he had been master of such complete  
authority, he would have been able to watch the  
sunset, not forty-four times in one day, but seventy-  
two, or even a hundred, or even two hundred  
times, without ever having to move his chair.

그래서 버리고 온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으로 어린 왕자는 약간 슬퍼지기도 하  
여 감히 용기를 내어 왕의 은총을 빌었다.

And because he felt a bit sad as he remembered his  
little planet which he had forsaken, he plucked up  
his courage to ask the king a favor:

“석양을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주세  
요. ...해가 지도 록 명령해 보세요...”

“I should like to see a sunset... Do me that  
kindness... Order the sun to set...”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 다니라든지, 비극을 한 편  
쓰라든지,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 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 까, 짐의 잘못일 까?”

“If I ordered a general to fly from one flower to  
another like a butterfly, or to write a tragic drama,  
or to change himself into a sea bird, and if the  
general did not carry out the order that he had  
received, which one of us would be in the wrong?”  
the king demanded. “The general, or myself?”

“폐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You,” said the little prince firmly.

## The Little Prince

“옳으니라.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애 근거해야 하느니라. 만일 네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은 짐의 명령이 정당하기 때문이니라.”

“그럼 제가 부탁한 석양은요?” 하고 일단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그걸 다시 상기 시켰다.

“석양을 보게 해 주겠노라. 짐이 명령하겠노라. 허나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게 언젠데요?”

왕이 대답했다. “흠, 흠! 오늘 저녁...오늘 저녁...일곱 시 사십 분경이 될 것이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석양을 못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약간은 지루해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없군요. 다시 떠나겠어요!”

신하가 한 사람 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왕이 답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짐은 너를 장관에 임명하겠노라!”

“무슨 장관요?”

“음...법무부 장관!”

“Exactly. One must require from each one the duty which each one can perform,” the king went on. “Accepted authority rests first of all on reason. If you ordered your people to go and throw themselves into the sea, they would rise up in revolution. I have the right to require obedience because my orders are reasonable.”

“Then my sunset?” the little prince reminded him: for he never forgot a question once he had asked it.

“You shall have your sunset. I shall command it. But, according to my science of government, I shall wait until conditions are favorable.”

“When will that be?” inquired the little prince.

“Hum! Hum!” replied the king; and before saying anything else he consulted a bulky almanac. “Hum! Hum! That will be about — about — that will be this evening about twenty minutes to eight. And you will see how well I am obeyed!”

The little prince yawned. He was regretting his lost sunset. And then, too, he was already beginning to be a little bored.

“I have nothing more to do here,” he said to the king. “So I shall set out on my way again.”

“Do not go,” said the king, who was very proud of having a subject. “Do not go. I will make you a Minister!”

“Minister of what?”

“Minster of — of Justice!”

## 어린 왕자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건 모를 일이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사륜마차를 둘 장소도 없고, 걷자니 피곤해서.”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그 행성 저 편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그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네가 너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네가 진정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재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흠! 흠!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사료된다. 밤이면 소리가 들리노라.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그의 목숨은 너의 재판에 좌우될 것이로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으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는 사형선고를 내리기 싫어요. 아무래도 떠나야겠네요.”

“그건 안 돼.” 왕이 말했다.

“But there is nobody here to judge!”

“We do not know that,” the king said to him. “I have not yet made a complete tour of my kingdom. I am very old. There is no room here for a carriage. And it tires me to walk.”

“Oh, but I have looked already!” said the little prince, turning around to give one more glance to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On that side, as on this, there was nobody at all...

“Then you shall judge yourself,” the king answered. “t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of all.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judge oneself than to judge others. If you succeed in judging yourself rightly, then you are indeed a man of true wisdom.”

“Yes,” said the little prince, “but I can judge myself anywhere. I do not need to live on this planet.”

“Hum! Hum!” said the king. “I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somewhere on my planet there is an old rat. I hear him at night. You can judge this old rat. From time to time you will condemn him to death. Thus his life will depend on your justice. But you will pardon him on each occasion; for he must be treated thriftily. He is the only one we have.”

“I,” replied the little prince, “do not like to condemn anyone to death. And now I think I will go on my way.”

“No,” said the king.

##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마쳤으나 늙은 왕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다.

But the little prince, having now completed his preparations for departure, had no wish to grieve the old monarch.

“폐하의 명령이 준수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지당한 명령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이럴테면 일 분 내로 떠나라고 제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If Your Majesty wishes to be promptly obeyed,” he said, “he should be able to give me a reasonable order. He should be able, for example, to order me to be gone by the end of one minute. It seems to me that conditions are favorable...”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 숨을 한 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As the king made no answer, the little prince hesitated a moment. Then, with a sigh, he took his leave.

그때 왕이 “짐은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하고 왕이 급히 소리질렀다.

“I make you my Ambassador,” the king called out, hastily.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He had a magnificent air of authority.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The grown-ups are very strange,”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self, as he continued on his journey.

## X I

## X I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았다.

The second planet was inhabited by a conceited man.

##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쟁이는 멀리서 부터 외쳤다. “아! 아! 숭배자가 납시는군!”

“Ah! Ah! I am about to receive a visit from an admirer!” he exclaimed from afar, when he first saw the little prince coming.

허영쟁이에게 다른 모든 사람은 숭배자에 지나지 않는다.

For, to conceited men, all other men are admirers.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희한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Good morning,” said the little prince. “That is a queer hat you are wearing.”

“답례용이지.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려고 쓰고 있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It is a hat for salutes,” the conceited man replied. “It is to raise in salute when people acclaim me. Unfortunately, nobody at all ever passes this way.”

허영쟁이가 답했다. “아, 그래요?”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Yes?” said the little prince, who did not understand what the conceited man was talking about.

“양손을 서로 마주 쳐봐.” 허영쟁이가 가르쳐 주었다.

“Clap your hands, one against the other,” the conceited man now directed him.

##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 올리며 공손히 답례했다.

The little prince clapped his hands. The conceited man raised his hat in a modest salute.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재미있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다시 답례했다.

“This is more entertaining than the visit to the king,”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self. And he began again to clap his hands, one against the other. The conceited man again raised his hat in salute.

한 오 분쯤 연습하다 보니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흥미를 잃고 말았다.

After five minutes of this exercise the little prince grew tired of the game’s monotony.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모자가 떨어지나요?”

“And what should one do to make the hat come down?” he asked.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뺨쟁이 아저씨에 게는 오로지 칭찬만 들리는 법이다.

But the conceited man did not hear him. Conceited people never hear anything but praise.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숭배하니?”

“Do you really admire me very much?” he demanded of the little prince.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What does that mean — ‘admire’?”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 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To admire means that you regard me as the handsomest, the best-dressed, the richest, and the most intelligent man on this planet.”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잖아!”

“But you are the only man on your planet!”

“나를 즐겁게 해다오. 그래도 나를 숭배해다오.”

“Do me this kindness. Admire me just the same.”

“아저씨를 숭배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깨를 조금 들썩하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I admire you,” said the little prince, shrugging his shoulders slightly, “but what is there in that to interest you so much?”

그리고 그는 그 별을 떠났다.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어린 왕자

‘어른들은 정말 참 이상해!’ 여행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이렇게만 생각했다.

“The grown-ups are certainly very odd,” he said to himself, as he continued on his journey.

## XII

## XII

다음 별에는 술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우울함은 엄청났다.

The next planet was inhabited by a tippler. This was a very short visit, but it plunged the little prince into deep dejection.



“거기서 뭐 해?”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한 병 무더기 앞에 말없이 앉아 있는 술 아저씨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다.

“What are you doing there?” he said to the tippler, whom he found settled down in silence before a collection of empty bottles and also a collection of full bottles.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 아저씨가 대꾸했다.

“I am drinking,” replied the tippler, with a lugubrious air.

“왜 마시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Why are you drinking?” demanded the little prince.

## The Little Prince

“잊어버리려고.” 술 아저씨가 답했다.

“So that I may forget,” replied the tippler.

“뭘 잊어?” 측은지심에서 어린 왕자가 물었다.

“Forget what?” inquired the little prince, who already was sorry for him.

“부끄럽다는 걸 잊으려고.” 고개를 숙이며 술 아저씨가 답했다.

“Forget that I am ashamed,” the tippler confessed, hanging his head.

“뭐가 부끄러운데?” 술에서 그를 꺼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Ashamed of what?” insisted the little prince, who wanted to help him.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 아저씨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Ashamed of drinking!” The tippler brought his speech to an end, and shut himself up in an impregnable silence.

당황한 어린 왕자는 곧바로 그 별을 떠났다.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puzzled.

‘어른들은 정말 아주, 아주 이상해.’ 여행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이렇게만 생각했다.

“The grown-ups are certainly very, very odd,” he said to himself, as he continued on his journey.

## X III

## XIII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하도 바빠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The fourth planet belonged to a businessman. This man was so much occupied that he did not even raise his head at the little prince’s arrival.



## 어린 왕자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네요.”

“Good morning,”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 “Your cigarette has gone out.”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 하고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 하고 여섯은 스물여덟. 담뱃불 다시 붙일 시간도 없네. 스물 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휴우! 그러니까 오억 일백육십이만 이천칠백삼십 이네.”

“Three and two make five. Five and seven make twelve. Twelve and three make fifteen. Good morning. Fifteen and seven make twenty-two. Twenty-two and six make twenty-eight. I haven’t time to light it again. Twenty-six and five make thirty-one. Phew! Then that makes five-hundred-and-one million, six-hundred-twenty-two-thousand, seven-hundred-thirty-one.”

“뭐가 오억이야?”

“Five hundred million what?” asked the little prince.

“어라? 너 여태 거기 있어? 오억 일백만... 뭐 더라 하도 바빠서 말이지.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쓰잘 데 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

“Eh? Are you still there? Five-hundred-and-one million — I can’t stop... I have so much to do! I am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I don’t amuse myself with balderdash. Two and five make seven...”

“뭐가 오억인데?” 일단 던진 질문은 결코 포기한 적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Five-hundred-and-one million what?” repeated the little prince, who never in his life had let go of a question once he had asked it.

## The Little Prince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The businessman raised his head.

“이 별에서 오십사 년 동안 살았는데, 방해  
를 받은 건 딱 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이십  
이 년 전 일인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웬 풍  
뎡이 녀석이 한 마리 떨어졌었지. 하도 웅웅  
거리는 통에 덧셈을 네 군데나 틀렸지.

“During the fifty-four years that I have inhabited  
this planet, I have been disturbed only three times.  
The first time was twenty-two years ago, when  
some giddy goose fell from goodness knows where.  
He made the most frightful noise that resounded all  
over the place, and I made four mistakes in my  
addition.

두 번째는 십일 년 전인데 신경통 발작 때문  
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책할 시간  
도 없어. 착실한 사람이라 그렇단다. 세 번  
째가...바로 지금 이야! 가만있자. 오억 일백  
만이던가...?”

The second time, eleven years ago, I was disturbed  
by an attack of rheumatism. I don't get enough  
exercise. I have no time for loafing. The third time  
— well, this is it! I was saying, then, five-hundred-  
and-one millions — ”

“뭐가 일백만이라는 거야?”

“Millions of what?”

사업가는 조용히 계산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The businessman suddenly realized that there was  
no hope of being left in peace until he answered  
this question.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  
다.”

“Millions of those little objects,” he said, “which  
one sometimes sees in the sky.”

“파리요?”

“Flies?”

“천만에.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말이다.”

“Oh, no. Little glittering objects.”

“벌이요?”

“Bees?”

“천만에. 금빛으로 반짝거리며 게으름뱅이  
들을 꿈꾸게 하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현  
데 난 착실한 사람이거든! 꿈이나 꾸고 있을  
시간 없어.”

“Oh, no. Little golden objects that set lazy men to  
idle dreaming. As for me, I am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There is no time for idle  
dreaming in my life.”

“아! 벌이요?”

“Ah! You mean the stars?”

“그래 별.”

“Yes, that's it. The stars.”

## 어린 왕자

“오억 개나 되는 별 가지고 뭐 해?”

“And what do you do with five-hundred millions of stars?”

“오억 일백육십이만 이천칠백서른하나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아주 정확하지.”

“Five-hundred-and-one million, six-hundred-twenty-two thousand, seven-hundred-thirty-one. I am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I am accurate.”

“그 별들 가지고 뭐 하는데?”

“And what do you do with these stars?”

“뭘 하느냐고?”

“What do I do with them?”

“응.”

“Yes.”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소유할 뿐이지.”

“Nothing. I own them.”

“별을 소유해?”

“You own the stars?”

“그래.”

“Yes.”

“하지만 전에 만난 왕은...”

“But I have already seen a king who — ”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지배’하지. 그건 아주 다른 이야기야.”

“Kings do not own, they reign over. It is a very different matter.”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해서 뭐해?”

“And what good does it do you to own the stars?”

“나를 부자로 만들지.”

“It does me the good of making me rich.”

“부자 되면 뭐해?”

“And what good does it do you to be rich?”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쓰지.”

“It makes it possible for me to buy more stars, if any are discovered.”

‘이 아저씨 생각하는 게 술 아저씨 수준이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This man,”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self, “reasons a little like my poor tippler...”

그래도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Nevertheless, he still had some more questions.

“별들을 어떻게 소유해?”

“How is it possible for one to own the stars?”

## The Little Prince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며 사업가가 되 물었다.

“To whom do they belong?” the businessman retorted, peevishly.

“몰라. 그 누구 것도 아니지.”

“I don’t know. To nobody.”

“그래서 내 것이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Then they belong to me, because I was the first person to think of it.”

“그거면 충분해?”

“Is that all that is necessary?”

“물론이지. 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건 네 것이지.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건 네 섬이고. 네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면 특허를 내. 그럼 그것이 네 것 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지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Certainly. When you find a diamond that belongs to nobody, it is yours. When you discover an island that belongs to nobody, it is yours. When you get an idea before any one else, you take out a patent on it: it is yours. So with me: I own the stars, because nobody else before me ever thought of owning them.”

“그렇군. 그런데 별 갖고 뭘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Yes, that is true,” said the little prince. “And what do you do with them?”

“관리하지. 세고 또 세지.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나는 착 실한 사람이거든!”

“I administer them,” replied the businessman. “I count them and recount them. It is difficult. But I am a man who is naturally interested in matters of consequence.”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다.

The little prince was still not satisfied.

“난 머플러를 가지고 그걸 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 또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꽃을 따서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 없잖아!”

“If I owned a silk scarf,” he said, “I could put it around my neck and take it away with me. If I owned a flower, I could pluck that flower and take it away with me. But you cannot pluck the stars from heaven...”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 있지.”

“No. But I can put them in the bank.”

“Whatever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서랍에 넣고 잠가 버 리지.”

“That means that I write the number of my stars on a little paper. And then I put this paper in a drawer and lock it with a key.”

어린 왕자

“그게 다야?”

“And that is all?”

“그게 다지!”

“That is enough,” said the businessman.

재미있으면서 꽤나 시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It is entertaining,” thought the little prince. “It is rather poetic. But it is of no great consequence.”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On matters of consequence, the little prince had ideas which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rown-ups.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꺼진 화산도 청소하고. 누가 알아. 내가 화산과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롭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I myself own a flower,” he continued his conversation with the businessman, “which I water every day. I own three volcanoes, which I clean out every week (for I also clean out the one that is extinct; one never knows). It is of some use to my volcanoes, and it is of some use to my flower, that I own them. But you are of no use to the stars...”

사업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 버렸다.

The businessman opened his mouth, but he found nothing to say in answer.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어른들은 정말 완전 희한해!’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The grown-ups are certainly altogether extraordinary,” he said simply, talking to himself as he continued on his journey.

## XIV

## XIV

다섯 번째 별은 무척 신기했다.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지기 한 사람이 있을 만 한 자리밖에 없었다.

The fifth planet was very strange. It was the smallest of all. There was just enough room on it for a street lamp and a lamplighter.

## The Little Prince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지만,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이 아저씨도 엉뚱할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 또는 술 아저씨 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 또는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셈이니.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재우는 거지. 이거 정말 멋진 일이군. 멋지니 까 정말 쓸모 있는 일이지!’

The little prince was not able to reach any explanation of the use of a street lamp and a lamplighter, somewhere in the heavens, on a planet which had no people, and not one house. But he said to himself, nevertheless:

“It may well be that this man is absurd. But he is not so absurd as the king, the conceited man, the businessman, and the tippler. For at least his work has some meaning. When he lights his street lamp, it is as if he brought one more star to life, or one flower. When he puts out his lamp, he sends the flower, or the star, to sleep. That is a beautiful occupation. And since it is beautiful, it is truly useful.”



어린 왕자는 행성에 다가가서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When he arrived on the planet he respectfully saluted the lamplighter.

## 어린 왕자

“안녕, 아저씨. 가로등을 막 끄던데 왜 그런 거지?”

“Good morning. Why have you just put out your lamp?”

“그건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Those are the orders,” replied the lamplighter. “Good morning.”

“명령이라니, 그게 뭔데?”

“What are the orders?”

“내 가로등을 끄는 거지. 좋은 밤.”

“The orders are that I put out my lamp. Good evening.”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And he lighted his lamp again.

“왜 지금 막 다시 켰어?”

“But why have you just lighted it again?”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Those are the orders,” replied the lamplighter.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어린 왕자가 말했다.

“I do not understand,” said the little prince.

“알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 까.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There is nothing to understand,” said the lamplighter. “Orders are orders. Good morning.”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And he put out his lamp.

그러고 나서는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Then he mopped his forehead with a handkerchief decorated with red squares.

“정말 고된 일이야. 전에는 순탄한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지. 그래서 낮 동안은 쉬고 나머지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I follow a terrible profession. In the old days it was reasonable. I put the lamp out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I lighted it again. I had the rest of the day for relaxation and the rest of the night for sleep.”

“그럼, 그 후 명령이 바뀐 건가?”

“And the orders have been changed since that time?”

## The Little Prince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지! 이 별은 해가 갈 수록 점점 빨리 돌아. 그런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일 분에 한 번씩 도니 일 초도 쉴 틈이 없어. 일 분마다 한 번씩 켜고 끄는 거지.”

“그것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일 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됐으니까.”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삼십 분이니까, 삼십 일이지! 좋은 밤.”

그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그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다.

지난날 의자를 끌어당겨 석양을 보러 가던 옛날이 생각났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이거 알아? ...쉬고 싶을 때 쉴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The orders have not been changed,” said the lamplighter. “That is the tragedy! From year to year the planet has turned more rapidly and the orders have not been changed!”

“Then what?” asked the little prince.

“Then — the planet now makes a complete turn every minute, and I no longer have a single second for repose. Once every minute I have to light my lamp and put it out!”

“That is very funny! A day lasts only one minute, here where you live!”

“It is not funny at all!” said the lamplighter. “While we have been talking together a month has gone by.”

“A month?”

“Yes, a month. Thirty minutes. Thirty days. Good evening.”

And he lighted his lamp again.

As the little prince watched him, he felt that he loved this lamplighter who was so faithful to his orders.

He remembered the sunsets which he himself had gone to seek, in other days, merely by pulling up his chair; and he wanted to help his friend.

“You know,” he said, “I can tell you a way you can rest whenever you want to...”

“I always want to rest,” said the lamplighter.



## 어린 왕자

사람은 누구나 충실하면서도 게으를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언제나 햇별을 쫓려면 천천히 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쉬고 싶으면 걸어...그럼 원하는 대로 해가 길어 질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 걸. 내 평생소원은 잠자는 거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안됐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지. 좋은 밤.” 가로등지기기가 말했다.

그러고는 가로등을 켜다.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아저씨는 다른 모든 사람들, 왕, 허영쟁이, 술 아저씨 또는 사업가로부터 멸시받겠지.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 지 않는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그건 이 아저씨가 저 자신 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이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친구 삼을 만난 건 이 아저씨뿐인데. 하지만 아저씨별은 너무 좁아. 두 사람만 돼도 설 자리가 없거든...’

For it is possible for a man to be faithful and lazy at the same time. The little prince went on with his explanation:

The little prince went on with his explanation: “Your planet is so small that three strides will take you all the way around it. To be always in the sunshine, you need only walk along rather slowly. When you want to rest, you will walk — and the day will last as long as you like.”

“That doesn’t do me much good,” said the lamplighter. “The one thing I love in life is to sleep.”

“Then you’re unlucky,” said the little prince.

“I am unlucky,” said the lamplighter. “Good morning.”

And he put out his lamp.

“That man,” said the little prince to himself, as he continued farther on his journey, “that man would be scorned by all the others: by the king, by the conceited man, by the tippler, by the businessman. Nevertheless he is the only one of them all who does not seem to me ridiculous. Perhaps that is because he is thinking of something else besides himself.”

He breathed a sigh of regret, and said to himself, again:

“That man is the only one of them all whom I could have made my friend. But his planet is indeed too small. There is no room on it for two people...”

##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 자신이 이 축복받은 별에 미련을 떨칠 수 없는 것이 특히 스물네 시간 동안 천사백 사십 번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What the little prince did not dare confess was that he was sorry most of all to leave this planet, because it was blest every day with 1440 sunsets!

## X V

## XV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 컸다. 이 별에는 굉장한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았다.

The sixth planet was ten times larger than the last one. It was inhabited by an old gentleman who wrote voluminous books.



“이런!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 그는 크게 소리쳤다.

“Oh, look! Here is an explorer!” he exclaimed to himself when he saw the little prince coming.

어린 왕자는 책상에 걸터앉아 잠깐 숨을 돌렸다. 벌써 여행을 꽤 했나 보다!

The little prince sat down on the table and panted a little. He had already traveled so much and so far!

“어디서 오는 거니?” 노인이 물었다.

“Where do you come from?” the old gentleman said to him.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요?”

“What is that big book?” said the little prince. “What are you doing?”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I am a geographer,” said the old gentleman.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What is a geographer?” asked the little prince.

## 어린 왕자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A geographer is a scholar who knows the location of all the seas, rivers, towns, mountains, and deserts.”

“거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네요!”

“That is very interesting,” said the little prince. “Here at last is a man who has a real profession!”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지리학자의 별 주위를 살폈다. 것처럼 멋진 별을 본 적이 없었다.

And he cast a look around him at the planet of the geographer. It was the most magnificent and stately planet that he had ever seen.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Your planet is very beautiful,” he said. “Has it any oceans?”

“그거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I couldn’t tell you,” said the geographer.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Ah!” The little prince was disappointed. “Has it any mountains?”

“난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I couldn’t tell you,” said the geographer.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And towns, and rivers, and deserts?”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I couldn’t tell you that, either.”

“지리학자라면서요?”

“But you are a geographer!”

“그래.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가 하나도 없거든. 도시, 강, 산, 바다, 태양, 사막을 세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몫이 아니란다.

“Exactly,” the geographer said. “But I am not an explorer. I haven’t a single explorer on my planet. It is not the geographer who goes out to count the towns, the rivers, the mountains, the seas, the oceans, and the deserts.”

지리학자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라 산책할 여유가 없지. 서재를 떠나지 못해.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지. 탐험가의 기억 중에 지리학자가 흥미로워하는 게 있으면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지.”

The geographer is much too important to go loafing about. He does not leave his desk. But he receives the explorers in his study. He asks them questions, and he notes down what they recall of their travels. And if the recollections of any one among them seem interesting to him, the geographer orders an inquiry into that explorer’s moral character.”

## The Little Prince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하면 지리책이 큰일 나지.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둘로 보이거든. 그러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두 개의 산을 표시할 수도 있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형편없는 탐험가가 될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양호하다고 알려지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가서 보나요?”

“가지 않아. 너무 번다하니까.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암석을 가져오라고 시키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네 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보거라!”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기록한다. 이후 증거가 확보 되면 기다렸다가 잉크로 적는 것이다.

“자, 어떤 별이지?” 지리학자가 물었다.

“Why is that?”

“Because an explorer who told lies would bring disaster on the books of the geographer. So would an explorer who drank too much.”

“Why is that?” asked the little prince.

“Because intoxicated men see double. Then the geographer would note down two mountains in a place where there was only one.”

“I know some one,” said the little prince, “who would make a bad explorer.”

“That is possible. Then, when the moral character of the explorer is shown to be good, an inquiry is ordered into his discovery.”

“One goes to see it?”

“No. That would be too complicated. But one requires the explorer to furnish proofs. For example, if the discovery in question is that of a large mountain, one requires that large stones be brought back from it.”

The geographer was suddenly stirred to excitement.

“But you — you come from far away! You are an explorer! You shall describe your planet to me!”

And, having opened his big register, the geographer sharpened his pencil. The recitals of explorers are put down first in pencil. One waits until the explorer has furnished proofs, before putting them down in ink.

“Well?” said the geographer expectantly.

## 어린 왕자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무척 작 거든요. 화산 이 셋 있어요. 둘은 활동 중이 고 하나는 꺼져 있지요. 하지만 누가 알 아 요.”

“Oh, where I live,” said the little prince, “it is not very interesting. It is all so small. I have three volcanoes. Two volcanoes are active and the other is extinct. But one never knows.”

“누가 알겠니.” 지리학자가 말했다.

“One never knows,” said the geographer.

“꽃도 하나 있어요.”

“I have also a flower.”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 했다.

“We do not record flowers,” said the geographer.

“왜요? 제일 예쁜 꽃인데!”

“Why is that? The flower is the most beautiful thing on my planet!”

“꽃들은 덧없는 것이니까.”

“We do not record them,” said the geographer, “because they are ephemeral.”

“‘덧없는’ 게 뭐예요?”

“What does that mean — ‘ephemeral’?”

“지리책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귀중한 책 이야. 지리책은 유형에 뒤지는 법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건 매우 드물 지. 바다 가 바닥을 보이는 일도 그렇고. 우리는 영원 한 것을 기록하지.”

“Geographies,” said the geographer, “are the books which, of all books, are most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They never become old-fashioned. It is very rarely that a mountain changes its position. It is very rarely that an ocean empties itself of its waters. We write of eternal things.”

“하지만 꺼진 화산들이 깨어날 수도 있 어 요. ‘덧없는’ 게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But extinct volcanoes may come to life again,” the little prince interrupted. “What does that mean — ‘ephemeral’?”

“화산들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지리학자에 겐 마찬가지로 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 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Whether volcanoes are extinct or alive, it comes to the same thing for us,” said the geographer. “The thing that matters to us is the mountain. It does not change.”

“그런데 ‘덧없는’ 게 뭐냐고요?” 일단 질문 을 꺼내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 가 되물었다.

“But what does that mean — ‘ephemeral’?” repeated the little prince, who never in his life had let go of a question, once he had asked it.

## The Little Prince

“그건 ‘곧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뜻이란다.”

“It means, ‘which is in danger of speedy disappearance.’”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요?”

“Is my flower in danger of speedy disappearance?”

“그럼.”

“Certainly it is.”

‘자신의 꽃이 덧없는 존재라니?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네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두고 오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My flower is ephemeral,” the little prince said to himself, “and she has only four thorns to defend herself against the world. And I have left her on my planet, all alone!”

어린 왕자로서는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That was his first moment of regret. But he took courage once more.

“할아버지 생각에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What place would you advise me to visit now?” he asked.

“지구라는 행성으로 가 봐. 평판이 좋으니...”

“The planet Earth,” replied the geographer. “It has a good reputation.”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났다, 자기 꽃을 생각하면서.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thinking of his flower.

## XVI

## XVI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일곱 번째 별이 바로 지구였다.

So then the seventh planet was the Earth.

지구는 그저 그런 행성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백열한 명의 왕(물론 흑인 왕들까지 합쳐서)과 칠천 명의 지리학자와 구십만 명의 사업가, 칠백오십만 명의 술 아저씨, 삼억 일천 백만 명의 뺑쟁이 아저씨들, 즉 대략 이십억 가량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The Earth is not just an ordinary planet! One can count, there, 111 kings (not forgetting, to be sure, the Negro kings among them), 7000 geographers, 900,000 businessmen, 7,500,000 tipplers, 311,000,000 conceited men — that is to say, about 2,000,000,000 grown-ups.

## 어린 왕자

당신에게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여섯 대륙을 통틀어 사십육만 이천 오백 십 일 명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가로등지기 군대 를 두어야 했다고 말해 두는 게 좋겠다.

좀 멀리서 보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부대의 동작 은 오페라 발레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지기 차례였다. 이들은 가로 등을 켜고 나서는 잠자러 갔다. 그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지기들이 입장하여 춤춘다.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면

러시아와 인도 가로등지기가 나온다. 그다음 순서는 아프리카와 유럽 가로등지기들, 다음 차례는 남아메리카 가로등지기들, 또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가로등지기 순서였다.

그런데 이들의 무대 입장 순서는 뒤바뀌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의 유일한 가로등지기와 남극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 년에 두 번 일했다.

To give you an idea of the size of the Earth, I will tell you that before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over the whole of the six continents, a veritable army of 462,511 lamplighters for the street lamps.

Seen from a slight distance, that would make a splendid spectacle. The movements of this army would be regulated like those of the ballet in the opera.

First would come the turn of the lamplighter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 Having set their lamps alight, these would go off to sleep. Next, the lamplighters of China and Siberia would enter for their steps in the dance, and then they too would be waved back into the wings.

After that would come the turn of the lamplighters of Russia and the Indies; then those of Africa and Europe; then those of South America; then those of South America; then those of North America.

And never would they make a mistake in the order of their entry upon the stage. It would be magnificent.

Only the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single lamp at the North Pole, and his colleague who was responsible for the single lamp at the South Pole — only these two would live free from toil and care: they would be busy twice a year.

## XVII

재치 부리다 보면 조금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의 가로 등지기 이야기도 그렇게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구에서 매우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의 이십억 인구가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 바짝 붙어 선다면 가로세로 이십 마일 짜리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태평양 한 가운데 가장 작은 섬에 전 인류를 쌓아 놓을 수도 있으리라.

어른들은 물론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바오밥나무 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 보라고 충고해야 한다. 어른들은 정말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럼 이들은 기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지겨운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지어다. 참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일단 지구에 내려선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놀랐다. 행성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벌써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때 달빛 고리 같은 것이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 XVII

When one wishes to play the wit, he sometimes wanders a little from the truth. I have not been altogether honest in what I have told you about the lamplighters. And I realize that I run the risk of giving a false idea of our planet to those who do not know it. Men occupy a very small place upon the Earth.

If the two billion inhabitants who people its surface were all to stand upright and somewhat crowded together, as they do for some big public assembly, they could easily be put into one public square twenty miles long and twenty miles wide. All humanity could be piled up on a small Pacific islet.

The grown-ups, to be sure, will not believe you when you tell them that. They imagine that they fill a great deal of space. They fancy themselves as important as the baobabs. You should advise them, then, to make their own calculations. They adore figures, and that will please them. But do not waste your time on this extra task. It is unnecessary. You have, I know, confidence in me.

When the little prince arrived on the Earth, he was very much surprised not to see any people. He was beginning to be afraid he had come to the wrong planet, when a coil of gold, the color of the moonlight, flashed across the sand.



어린 왕자



“안녕.” 어린 왕자가 영겁결에 말했다.

“Good evening,” said the little prince courteously.

“안녕.” 뱀이 말했다.

“Good evening,” said the snake.

“지금 내가 어느 행성에 떨어진 거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What planet is this on which I have come down?” asked the little prince.

“지구 위에. 여긴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다.

“This is the Earth; this is Africa,” the snake answered.

“그래...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Ah! Then there are no people on the Earth?”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This is the desert. There are no people in the desert. The Earth is large,” said the snake.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The little prince sat down on a stone, and raised his eyes toward the sky.

## The Little Prince

“별들이 환히 빛나는 건 언젠가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위 에 있어... 그런데 참 멀기도 하군!”

“I wonder,” he said, “whether the stars are set alight in heaven so that one day each one of us may find his own again... Look at my planet. It is right there above us. But how far away it is!”

“아름다운 별이구나. 여긴 뭐 하러 왔는데?” 뱀이 말했다.

“It is beautiful,” the snake said. “What has brought you here?”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떤 꽃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I have been having some trouble with a flower,” said the little prince.

“아!” 뱀이 대답했다.

“Ah!” said the snake.

그리고 서로 잠자코 있었다.

And they were both silent.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데...” 어린 왕자가 마침내 다시 입을 떼었다.

“Where are the men?” the little prince at last took up the conversation again. “It is a little lonely in the desert...”

“사람들끼리도 외롭긴 마찬가지란다.” 뱀이 말했다.

“It is also lonely among men,” the snake said.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다.

The little prince gazed at him for a long time.

## 어린 왕자



“넌 희한한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  
랑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You are a funny animal,” he said at last. “You are  
no thicker than a finger...”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세.” 뱀이 말  
했다.

“But I am more powerful than the finger of a king,”  
said the snake.

어린 왕자는 한 번 미소 지었다.

The little prince smiled.

“넌 그렇게 세지 않아... 발도 없고... 여행도  
못 하겠다...”

“You are not very powerful. You haven’t even any  
feet. You cannot even travel...”

“배보다 더 멀리 널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I can carry you farther than any ship could take  
you,” said the snake.

뱀은 어린 왕자 발목을 금팔찌처럼 휘감고  
말했다.

He twined himself around the little prince’s ankle,  
like a golden bracelet.

## The Little Prince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면 그가 나왔던 땅으로 되돌아가 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참 딱하구나. 그렇게 약한 몸으로 이 삭막한 지구에 왔으 니. 너의 별이 너무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아! 잘 알겠어. 그런데 넌 줄곧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 XVIII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건너면서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 뿐이다. 꽃잎 세 개짜리 아무 것도 아닌 꽃 한 송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얄밟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대상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Whoever I touch, I send back to the earth from whence he came,” the snake spoke again. “But you are innocent and true, and you come from a star...”

The little prince made no reply.

“You move me to pity — you are so weak on this Earth made of granite,” the snake said. “I can help you, some day, if you grow too homesick for your own planet. I can — ”

“Oh! I understand you very well,” said the little prince. “But why do you always speak in riddles?”

“I solve them all,” said the snake.

And they were both silent.

## XVIII

The little prince crossed the desert and met with only one flower. It was a flower with three petals, a flower of no account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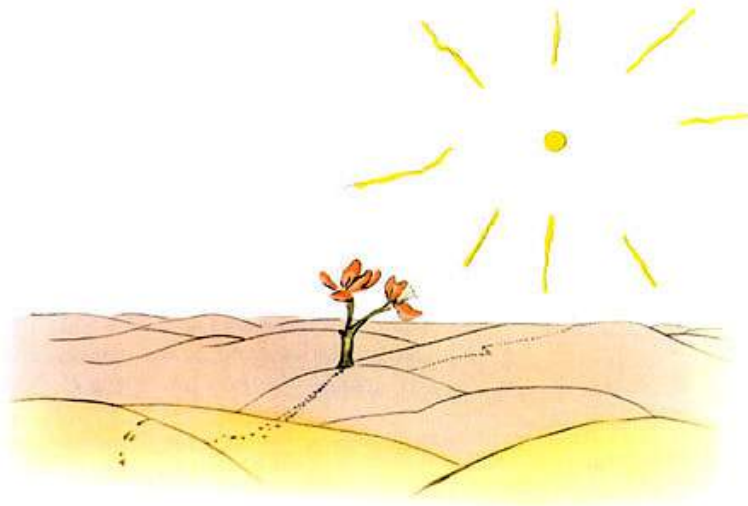
“Good morning,” said the little prince.

“Good morning,” said the flower.

“Where are the men?” the little prince asked, politely.

The flower had once seen a caravan passing.

어린 왕자



“사람들이라고? 예닐곱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보았지!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지는 전혀 알 수 없지. 사람들은 바람 따라 떠돌지. 사람들은 뿌리가 없단다. 그래서 몹시 곤란해하는 거란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 XIX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알고 있던 산이라곤 자신의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화산 세 개가 고작이었다. 사 화산은 걸상 삼아 앉곤 했었다. 어린 왕자는 지레 짐작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한 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척대고 말해 보았다.

“Men?” she echoed. “I think there are six or seven of them in existence. I saw them, several years ago. But one never knows where to find them. The wind blows them away. They have no roots, and that makes their life very difficult.”

“Goodbye,” said the little prince.

“Goodbye,” said the flower.

## XIX

After that, the little prince climbed a high mountain. The only mountains he had ever known were the three volcanoes, which came up to his knees. And he used the extinct volcano as a footstool. “From a mountain as high as this one,” he said to himself, “I shall be able to see the whole planet at one glance, and all the people...” But he saw nothing, save peaks of rock that were sharpened like needles.

“Good morning,” he said courteously.

## The Little Prince

“안녕...안녕...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Good morning — Good morning — Good morning,” answered the echo.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Who are you?” said the little prince.

“당신은 누구세요...누구세요...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Who are you — Who are you — Who are you?”  
answered the echo.

“친구해 주세요.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Be my friends. I am all alone,” he said.

“난 외로워...난 외로워...난 외로워...” 메아  
리가 대답했다.

“I am all alone — all alone — all alone,” answered  
the echo.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희한한  
별이야! 모두 메마르고, 모두 뾰족하고, 모  
두 험해.

“What a queer planet!” he thought. “It is altogether  
dry, and altogether pointed, and altogether harsh  
and forbidding.



어린 왕자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의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 별엔 꽃 한 송이가 있어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 왔는데...'

And the people have no imagination. They repeat whatever one says to them... On my planet I had a flower; she always was the first to speak..."

XX

XX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밭, 바위 더미, 눈길을 헤매고서야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은 모두 사람 사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ce at last came upon a road. And all roads lead to the abodes of men.

“안녕.” 그가 말했다.

“Good morning,” he said.

장미가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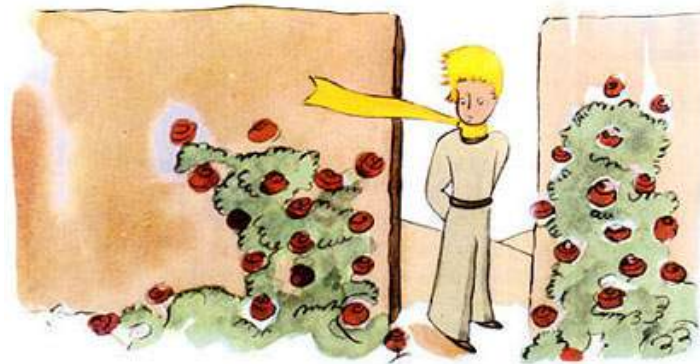
He was standing before a garden, all a-bloom with roses.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Good morning,” said the roses.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The little prince gazed at them. They all looked like his flower.



“여러분은 누구세요?”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물었다.

“Who are you?” he demanded, thunderstruck.

“우리는 장미야.” 꽃들이 말했다.

“We are roses,” the roses said.

## The Little Prince

“아!” 어린 왕자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장미는 자기 품종으로는 자신이 유일한 꽃이라 말해 왔 으니까. 그런데 이 정원 하나에만도 똑 닮은 꽃들이 오천 송 이가 피어 있으니!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속상해하겠지... 심하게 콜록거리 면서 창피당하지 않으려 죽는 시늉을 할 걸. 그러면 나는 돌 보는 척해줘야지. 안 그러면 내게 무안을 주려고 정말 죽어 버릴지도 몰라...’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갖고 있어 부자라고 믿었는데. 그저 흔한 꽃을 갖고 있다니. 장미꽃 한 송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화산 세 개, 그것도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진짜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And he was overcome with sadness. His flower had told him that she was the only one of her kind in all the universe. And here were five thousand of them, all alike, in one single garden!

“She would be very much annoyed,” he said to himself, “if she should see that... She would cough most dreadfully, and she would pretend that she was dying, to avoid being laughed at. And I should be obliged to pretend that I was nursing her back to life — for if I did not do that, to humble myself also, she would really allow herself to die...”

Then he went on with his reflections: “I thought that I was rich, with a flower that was unique in all the world; and all I had was a common rose. A common rose, and three volcanoes that come up to my knees — and one of them perhaps extinct forever... That doesn’t make me a very great prince...”

And he lay down in the grass and cried.





어린 왕자

## XXI

그때 여우가 나타난 것이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암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 XXI

It was then that the fox appeared.

“Good morning,” said the fox.

“Good morning,” the little prince responded politely, although when he turned around he saw nothing.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와 나와 놀자. 난 진짜 슬퍼...”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너하고 못 놀아.” 여우가 말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I am right here,” the voice said, “under the apple tree.”

“Who are you?” asked the little prince, and added, “You are very pretty to look at.”

“I am a fox,” the fox said.

“Come and play with me,” proposed the little prince. “I am so unhappy.”

“I cannot play with you,” the fox said. “I am not tamed.”

“Ah! Please excuse me,” said the little prince.

## The Little Prince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But, after some thought, he added:

“길들인다는 게 뭐야?”

“What does that mean — ‘tame’?”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뭘 찾는 거니?” 여우가 물었다.

“You do not live here,” said the fox. “What is it that you are looking for?”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뭔데?”

“I am looking for men,” said the little prince. “What does that mean — ‘tame’?”

“사람들은 소총으로 사냥하지. 정말 성가셔! 닭을 기르기도 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닭을 찾는 거니?” 여우가 물었다.

“Men,” said the fox. “They have guns, and they hunt. It is very disturbing. They also raise chickens. These are their only interests. Are you looking for chickens?”



“아니야.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No,” said the little prince. “I am looking for friends. What does that mean — ‘tame’?”

“그건 새까맣게 잊혀진 일이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여우가 말했다.

“It is an act too often neglected,” said the fox. “It means to establish ties.”

“관계를 맺는다고?”

“‘To establish ties’?”

## 어린 왕자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겐 세상에 흔한 다른 소년들처럼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필요치 않아. 너도 물론 내가 필요 없겠지. 난 너에겐 세상에 흔한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져. 너는 내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년이 되고 나는 네게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이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렇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별 것이 다 있으니까...”

“아, 그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해했다.

“그럼 다른 별이라고?”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 있니?”

“아니, 없어.”

“거참 흥미로운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Just that,” said the fox. “To me, you are still nothing more than a little boy who is just like a hundred thousand other little boys. And I have no need of you. And you, on your part, have no need of me. To you, I am nothing more than a fox like a hundred thousand other foxes. But if you tame me, then we shall need each other. To me, you wi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To you, I sha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said the little prince. “There is a flower... I think that she has tamed me...”

“It is possible,” said the fox. “On the Earth one sees all sorts of things.”

“Oh, but this is not on the Earth!” said the little prince.

The fox seemed perplexed, and very curious.

“On another planet?”

“Yes.”

“Are there hunters on that planet?”

“No.”

“Ah, that is interesting! Are there chickens?”

“No.”

“Nothing is perfect,” sighed the fox.

But he came back to his idea.

## The Little Prince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래. 그래서 난 좀 따분하지.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해 질 거야. 많은 발자국과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에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한 번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지. 밀은 내겐 아무 쓸모 없지.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 없지. 그래서 서글퍼! 그런데 네 머리칼은 금빛이지.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이면 정말 신나겠지! 밀도 금빛이지. 너를 생각하게 되겠지. 그럼 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바라보더니, “제발...날 길들여 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찾아볼 친구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다니까.”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뭘 알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 이제 이를 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친구도 없는 거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My life is very monotonous,” the fox said. “I hunt chickens; men hunt me. All the chickens are just alike, and all the men are just alike. And, in consequence, I am a little bored. But if you tame me, it will be as if the sun came to shine on my life. I shall know the sound of a step that will be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Other steps send me hurrying back underneath the ground. Yours will call me, like music, out of my burrow.

And then look: you see the grain-fields down yonder? I do not eat bread. Wheat is of no use to me. The wheat fields have nothing to say to me. And that is sad. But you have hair that is the color of gold. Think how wonderful that will be when you have tamed me! The grain, which is also golden, will bring me back the thought of you. And I shall love to listen to the wind in the wheat...”

The fox gazed at the little prince, for a long time.

“Please — tame me!” he said.

“I want to, very much,” the little prince replied. “But I have not much time. I have friends to discover, and a great many things to understand.”

“One only understands the things that one tames,” said the fox. “Men have no more time to understand anything. They buy things all ready made at the shops. But there is no shop anywhere where one can buy friendship, and so men have no friends any more. If you want a friend, tame me...”

“What must I do, to tame you?” asked the little prince.

## 어린 왕자

“정말 참을 줄 알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  
 아 있어. 난 곁 눈질로 널 볼게. 아무 말도 하  
 지 마. 말은 오해의 원천이지. 그래도 날마  
 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으라고...”

“You must be very patient,” replied the fox. “First  
 you will sit down at a little distance from me — like  
 that — in the grass. I shall look at you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you will say nothing. Words  
 are the source of misunderstandings. But you will  
 sit a little closer to me, every day...”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The next day the little prince came back.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른테면, 네가 오후 네 시  
 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 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  
 지. 네 시에는 불안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난 행복이 얼마 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  
 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에 옷을 입  
 혀야 할지 모를 거야. 의례가 필요하거든.”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come back at the  
 same hour,” said the fox. “If, for example, you come  
 at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then at three  
 o’clock I shall begin to be happy. I shall feel happier  
 and happier as the hour advances. At four o’clock, I  
 shall already be worrying and jumping about. I shall  
 show you how happy I am! But if you come at just  
 any time, I shall never know at what hour my heart  
 is to be ready to greet you... One must observe the  
 proper rites...”

“의례가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What is a rite?” asked the little prince.

## The Little Prince

“그것도 새까맣게 잊혀진 일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례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 되는 거지!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날마다 그게 그거고. 그럼 난 휴일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 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아! 눈물이 나오려고 해.”

“네 잘못이야.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널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헌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넌 하나도 득본 게 없잖아!”

“나도 득본 게 있어. 밀밭 색깔 덕분이지.”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Those also are actions too often neglected,” said the fox. “They are what make one day different from other days, one hour from other hours. There is a rite, for example, among my hunters. Every Thursday they dance with the village girls. So Thursday is a wonderful day for me! I can take a walk as far as the vineyards. But if the hunters danced at just any time, every day would be like every other day, and I should never have any vacation at all.”

So the little prince tamed the fox. And when the hour of his departure drew near —

“Ah,” said the fox, “I shall cry.”

“It is your own fault,” said the little prince. “I never wished you any sort of harm; but you wanted me to tame you...”

“Yes, that is so,” said the fox.

“But now you are going to cry!” said the little prince.

“Yes, that is so,” said the fox.

“Then it has done you no good at all!”

“It has done me good,” said the fox, “because of the color of the wheat fields.”

And then he added:

## 어린 왕자

“다시 가서 장미들을 봐. 네 장미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미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인사를 해 줘. 그러면 내가 네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꽃들에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는 세상에 흔한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그러자 장미꽃들은 무척 당황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비어 있지.”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누구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내 꽃도 너희들과 똑같아 보일 것이지. 하지만 내겐 그 꽃 한 송이가 너희들 모두보다 중요해. 내가 물을 준 꽃이고, 유리 덮개를 씌워 준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바람막이로 막아 준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 준(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 남겨둔 것 말고) 꽃이기 때문이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심지어 때로는 조용히 침묵을 기다려 준 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 장미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Go and look again at the roses. You will understand now that yours is unique in all the world. Then come back to say goodbye to me, and I will make you a present of a secret.”

The little prince went away, to look again at the roses.

“You are not at all like my rose,” he said. “As yet you are nothing. No one has tamed you, and you have tamed no one. You are like my fox when I first knew him. He was only a fox like a hundred thousand other foxes. But I have made him my friend, and now he is unique in all the world.”

And the roses were very much embarrassed.

“You are beautiful, but you are empty,” he went on. “One could not die for you. To be sure, an ordinary passerby would think that my rose looked just like you — the rose that belongs to me. But in herself alone she is more important than all the hundreds of you other roses: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watered;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put under the glass globe;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sheltered behind the screen; because it is for her that I have killed the caterpillars (except the two or three that we saved to become butterflies); because it is she that I have listened to, when she grumbled, or boasted, or ever sometimes when she said nothing. Because she is my rose.”

And he went back to meet the fox.

“Goodbye,” he said.

## The Little Prince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하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Goodbye,” said the fox. “And now here is my secret, a very simple secret: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가 따라 말했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the little prince repeated, so that he would be sure to remember.

“네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네 꽃에 바친 시간이라.”

“It is the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that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내가 내 꽃에 바친 시간이라...”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It is the time I have wasted for my rose — ” said the little prince, so that he would be sure to remember.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 제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Men have forgotten this truth,” said the fox. “But you must not forget it. You become responsible, forever, for what you have tamed.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rose...”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잊지 않으려 어린 왕자가 되풀이했다.

“I am responsible for my rose,” the little prince repeated, so that he would be sure to remember.

## X X II

## XXII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Good morning,” said the little prince.

“안녕.”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Good morning”, said the railway switchman.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What do you do here?” the little prince asked.

“승객들을 천 명씩 내보내고 있지. 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들을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또 어떤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I sort out travelers, in bundles of a thousand” , said the switchman. “I send off the trains that carry them: now to the right, now to the left.”



## 어린 왕자

그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치  
듯 포효하자 통 제실이 요동쳤다.

And a brilliantly lighted express train shook the  
switchman's cabin as it rushed by with a roar like  
thunder.

“저 사람들 참 바쁘군. 무얼 찾아가지?” 어  
린 왕자가 물었다.

“They are in a great hurry,” said the little prince.  
“What are they looking for?”

“기관사 자신도 몰라.” 선로통제원이 말했  
다.

“Not even the locomotive engineer knows that,”  
said the switchman.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켜 두 번째 급행  
열차가 포효했다.

And a second brilliantly lighted express thundered  
by, in the opposite direction.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  
다...

“Are they coming back already?” demanded the  
little prince.

“다른 사람들이야.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These are not the same ones,” said the  
switchman. “It is an exchange.”

“살던 곳이 맘에 안 들었나?”

“Were they not satisfied where they were?” asked  
the little prince.

“자기 사는 곳은 결코 맘에 들지 않는 법이  
지.”

“No one is ever satisfied where he is,” said the  
switchman.

그러자 불을 켜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을  
울렸다.

And they heard the roaring thunder of a third  
brilliantly lighted express.

“처음 지나간 승객들을 쫓아가나?” 어린 왕  
자가 물었다.

“Are they pursuing the first travelers?” demanded  
the little prince.

“아무것도 쫓지 않아. 열차 안에서 잠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해대지. 아이들만 유리창  
에 코를 박고 있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They are pursuing nothing at all,” said the  
switchman. “They are asleep in there, or if they are  
not asleep they are yawning. Only the children are  
flattening their noses against the windowpanes.”

## The Little Prince

“애들만이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 알지. 아이들은 헝겊 인형 에 시간을 바치지. 그래서 인형이 매우 소중한 것이 되지. 인형을 빼앗기면 당연히 울어 대고...”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애들은 운이 좋아.”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Only the children know what they are looking for,” said the little prince. “They waste their time over a rag doll and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them; and if anybody takes it away from them, they cry...”

“They are lucky,” the switchman said.

## X X III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 주는 개량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 에 한 알만 먹어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단다.

“그런 거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이 엄청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지. 매주 오십삼 분씩 절약된다네.” 상인이 말했다.

“그 오십삼 분으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오십삼 분이 주어진다면 샘을 향해 아주 천 천히 걸겠어...’ 어린 왕자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 XXIII

“Good morning,” said the little prince.

“Good morning,” said the merchant.

This was a merchant who sold pills that had been invented to quench thirst. You need only swallow one pill a week, and you would feel no need of anything to drink.

“Why are you selling those?” asked the little prince.

“Because they save a tremendous amount of time,” said the merchant. “Computations have been made by experts. With these pills, you save fifty-three minutes in every week.”

“And what do I do with those fifty-three minutes?”

“Anything you like...”

“As for me,” said the little prince to himself, “if I had fifty-three minutes to spend as I liked, I should walk at my leisure toward a spring of fresh water.”

어린 왕자



## X XIV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 난 지 여드레째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며 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네 경험담은 참 멋있구나. 하지만 아직 비행기를 수리하지 못했어. 마실 물도 떨어지고. 샘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 여우 말인데...”

“꼬마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목말라 죽을 상황인데...”

그는 죽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대답했다.

## XXIV

It was now the eighth day since I had had my accident in the desert, and I had listened to the story of the merchant as I was drinking the last drop of my water supply.

“Ah,” I said to the little prince, “these memories of yours are very charming; but I have not yet succeeded in repairing my plane; I have nothing more to drink; and I, too, should be very happy if I could walk at my leisure toward a spring of fresh water!”

“My friend the fox — ” the little prince said to me.

“My dear little man, this is no longer a matter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the fox!”

“Why not?”

“Because I am about to die of thirst...”

He did not follow my reasoning, and he answered me:

## The Little Prince

“친구를 얻은 건 좋은 일이지, 죽는 일이 있어도. 여우 친구를 얻어 정말 기뻐...”

“It is a good thing to have had a friend, even if one is about to die. I, for instance, am very glad to have had a fox as a friend...”

‘어린 왕자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지.’ 나는 생각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는지, 약간의 햇빛만으로도 충분 하니...’

“He has no way of guessing the danger,” I said to myself. “He has never been either hungry or thirsty. A little sunshine is all he needs...”

그런데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반응을 보였다.

But he looked at me steadily, and replied to my thought:

“나도 목말라...우물을 찾으러 가...”

“I am thirsty, too. Let us look for a well...”

나는 실망스런 몸짓을 보였다. 광활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서는 건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I made a gesture of weariness. It is absurd to look for a well, at random, in the immensity of the desert. But nevertheless we started walking.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빛 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마치 꿈속에서 그 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When we had trudged along for several hours, in silence, the darkness fell, and the stars began to come out. Thirst had made me a little feverish, and I looked at them as if I were in a dream. The little prince’s last words came reeling back into my memory: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다.

“Then you are thirsty, too?” I demanded.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But he did not reply to my question. He merely said to me: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Water may also be good for the heart...”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그에게 물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I did not understand this answer, but I said nothing. I knew very well that it was impossible to cross-examine him.

그는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다시 입을 열었다.

He was tired. He sat down. I sat down beside him. And, after a little silence, he spoke again:

## 어린 왕자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있어서...”

“The stars are beautiful, because of a flower that cannot be seen.”

나는 “그럼!” 하고 답했다. 그리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I replied, “Yes, that is so.” And, without saying anything more, I looked across the ridges of sand that were stretched out before us in the moonlight.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The desert is beautiful,” the little prince added.

그것은 사실이였다. 나는 늘 사막을 사랑해 왔다. 모래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 빛나는 것이 있다...

And that was true. I have always loved the desert. One sits down on a desert sand dune, sees nothing, hears nothing. Yet through the silence something throbs, and gleams...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 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What makes the desert beautiful,” said the little prince, “is that somewhere it hides a well...”

문득 사막의 그 신비로운 광채가 이해되자 나는 놀라고 말았다. 어린 시절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였다. 물론 아무도 보물을 찾 아낼 수 없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전설로 집 안 전체가 매혹에 휩싸이는 것이였다. 내 집은 그 가슴 깊숙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I was astonished by a sudden understanding of that mysterious radiation of the sands. When I was a little boy I lived in an old house, and legend told us that a treasure was buried there. To be sure, no one had ever known how to find it; perhaps no one had ever even looked for it. But it cast an enchantment over that house. My home was hiding a secret in the depths of its heart...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걸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Yes,” I said to the little prince. “The house, the stars, the desert — what gives them their beauty is something that is invisible!”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생각이 같아 기뻐.” 그가 말했다.

“I am glad,” he said, “that you agree with my fox.”

##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이 없을 듯했다.

달빛 아래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 곁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내비치고 있어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에도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 모습 때문이지...!' 그러자 그가 더욱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등불을 열심히 지켜야겠어. 한 줄기 바람에도 꺼져 버릴테니...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 X X V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로 기어들어 가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얼 찾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제자리를 뱅뱅 맴돌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As the little prince dropped off to sleep, I took him in my arms and set out walking once more. I felt deeply moved, and stirred. It seemed to me that I was carrying a very fragile treasure. It seemed to me, even, that there was nothing more fragile on all Earth.

In the moonlight I looked at his pale forehead, his closed eyes, his locks of hair that trembled in the wind, and I said to myself:

"What I see here is nothing but a shell. What is most important is invisible..." As his lips opened slightly with the suspicion of a half-smile, I said to myself, again: "What moves me so deeply, about this little prince who is sleeping here, is his loyalty to a flower — the image of a rose that shines through his whole being like the flame of a lamp, even when he is asleep..." And I felt him to be more fragile still. I felt the need of protecting him, as if he himself were a flame that might be extinguished by a little puff of wind...

And, as I walked on so, I found the well, at daybreak.

## XXV

"Men," said the little prince, "set out on their way in express trains, but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looking for. Then they rush about, and get excited, and turn round and round..."

And he added:

"It is not worth the trouble..."

## 어린 왕자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 우물들과 닮은 구석이 없었다. 사하라 우물들은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 우물 같았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곤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The well that we had come to was not like the wells of the Sahara. The wells of the Sahara are mere holes dug in the sand. This one was like a well in a village. But there was no village here, and I thought I must be dreaming...

“이상한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없는 게 없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도...”

“It is strange,” I said to the little prince. “Everything is ready for use: the pulley, the bucket, the rope...”

그는 웃으며 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 낡은 바람개비가 뼈 격거리듯 도르래가 뼈격거렸다.

He laughed, touched the rope, and set the pulley to working. And the pulley moaned, like an old weathervane which the wind has long since forgotten.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물을 깨우니 노래 부르네...”

“Do you hear?” said the little prince. “We have wakened the well, and it is singing...”

나는 어린 왕자가 애쓰는 걸 원치 않았다.

I did not want him to tire himself with the rope.

## The Little Prince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네겐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가까지 들어 올렸다. 나는 두레 박이 넘어지지 않게 잘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 노랫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아직도 출렁이는 물속에서 출렁거리는 해가 보였다.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 좀 줘...”

그래서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건 무슨 축제처럼 달콤했다. 과연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무엇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 벌인 행진과 도르래가 내는 노랫소리, 내 두 팔로 이룬 노력의 소산이었다. 마치 선물처럼 마음에도 좋은 것이었다.

어린 소년 시절 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 성가와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 때문에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별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꽃을 오천 송이나 가꾸지만 정원에서 자신들이 찾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찾아낼 수 없고 말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

“Leave it to me,” I said. “It is too heavy for you.”

I hoisted the bucket slowly to the edge of the well and set it there — happy, tired as I was, over my achievement. The song of the pulley was still in my ears, and I could see the sunlight shimmer in the still trembling water.

“I am thirsty for this water,” said the little prince. “Give me some of it to drink...”

And I understood what he had been looking for.

I raised the bucket to his lips. He drank, his eyes closed. It was as sweet as some special festival treat. This water was indeed a different thing from ordinary nourishment. Its sweetness was born of the walk under the stars, the song of the pulley, the effort of my arms. It was good for the heart, like a present.

When I was a little boy, the lights of the Christmas tree, the music of the Midnight Mass, the tenderness of smiling faces, used to make up, so, the radiance of the gifts I received.

“The men where you live,” said the little prince, “raise five thousand roses in the same garden — and they do not find in it what they are looking for.”

“They do not find it,” I replied.

“And yet what they are looking for could be found in one single rose, or in a little water.”



## 어린 왕자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Yes, that is true,” I said.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And the little prince added: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지.”

“But the eyes are blind. One must look with the heart...”

나도 물을 마신 뒤였다. 숨이 편해졌다. 해가 뜰 무렵 모래는 꿀 빛이다. 나는 이 꿀 빛에도 행복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는지...

I had drunk the water. I breathed easily. At sunrise the sand is the color of honey. And that honey color was making me happy, too. What brought me, then, this sense of grief?

“약속 지켜.”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도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You must keep your promise,” said the little prince, softly, as he sat down beside me once more.

“무슨 약속?”

“What promise?”

“약속했잖아...양 부리망 말이야...난 그 꽃에 책임이 있잖아!”

“You know — a muzzle for my sheep... I am responsible for this flower...”

나는 대충 그려 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I took my rough drafts of drawings out of my pocket. The little prince looked them over, and laughed as he said: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나무는 배추 닮았어...”

“Your baobabs — they look a little like cabbages.”

“아, 그래?” 바오밥나무 그림을 으스대던 나 아니던가!

“Oh!”  
I had been so proud of my baobabs!

“아저씨 여우는 말이야...이 귀 좀 봐...약간 뿔 같기도 하고...너무 길어!”

“Your fox — his ears look a little like horns; and they are too long.”

그러고는 그는 또 웃었다.

And he laughed again.

“꼬마야, 좀 심하구나.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 뱀 말고는 그릴 줄 모른다니까.”

“You are not fair, little prince,” I said. “I don’t know how to draw anything except boa constrictors from the outside and boa constrictors from the inside.”

## The Little Prince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거야.” 그가 말했다.

“Oh, that will be all right,” he said, “children understand.”

나는 그래서 연필로 부리망을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어 왔다.

So then I made a pencil sketch of a muzzle. And as I gave it to him my heart was torn.

“너 뭔가 숨기고 있지...”

“You have plans that I do not know about,” I said.

그러나 그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But he did not answer me.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알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내일이면 일 년이 야...”

He said to me, instead:  
“You know — my descent to the earth... Tomorrow will be its anniversary.”

그러고는 잠시 말이 없다 다시 말을 이었다.

Then, after a silence, he went on: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는데...”

“I came down very near here.”

그리곤 얼굴을 붉혔다.

And he flushed.

그러자 또다시 까닭 모를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And once again, without understanding why, I had a queer sense of sorrow.

그러면서 도 뭔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일주일 전 너를 만난 날 아침,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을 홀로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것이.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야?”

One question, however, occurred to me:  
“Then it was not by chance that on the morning when I first met you — a week ago — you were strolling along like that, all alone, a thousand miles from any inhabited region? You were on the your back to the place where you landed?”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The little prince flushed again.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덧붙여 물었다.

And I added, with some hesitancy:

“아마 일주년이라 그런 거겠지? ...”

“Perhaps it was because of the anniversary?”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결코 대 답하진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히는 것은 그렇다는 뜻 아 닐까?

The little prince flushed once more. He never answered questions — but when one flushes does that not mean “Yes”?

어린 왕자

“아! 난 두렵구나...” 나는 그에게 말했다.

“Ah,” I said to him, “I am a little frightened — ”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But he interrupted me.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기계 고치던 데로 돌아가.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 다시 와...”

“Now you must work. You must return to your engine. I will be waiting for you here. Come back tomorrow evening...”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여우가 떠올랐다. 길들여지면 조금이나마 눈물을 흘릴까 우려되는 것이다...

But I was not reassured. I remembered the fox. One runs the risk of weeping a little, if one lets himself be tamed...

## X X V I

## XXVI

우물 쪽으로는 낡아서 무너져 내린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린 채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들렸다.

Beside the well there was the ruin of an old stone wall. When I came back from my work, the next evening, I saw from some distance away my little prince sitting on top of a wall, with his feet dangling. And I heard him say:

“그래 기억 안 나니? 정확히 여기는 아냐!” 그가 말했다.

“Then you don’t remember. This is not the exact spot.”

다음과 같이 대꾸하는 것을 보니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답하는 것 같았다.

Another voice must have answered him, for he replied to it: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닌걸...”

“Yes, yes! It is the right day, but this is not the place.”

나는 담벼락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는 것이었다.

I continued my walk toward the wall. At no time did I see or hear anyone. The little prince, however, replied once again: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모래 위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면 알잖아.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 — Exactly. You will see where my track begins, in the sand. You have nothing to do but wait for me there. I shall be there tonight.”

## The Little Prince

나는 담벼락에서 이십 미터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I was only twenty meters from the wall, and I still saw nothing.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After a silence the little prince spoke again:

“네 독은 좋은 거지? 확실히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건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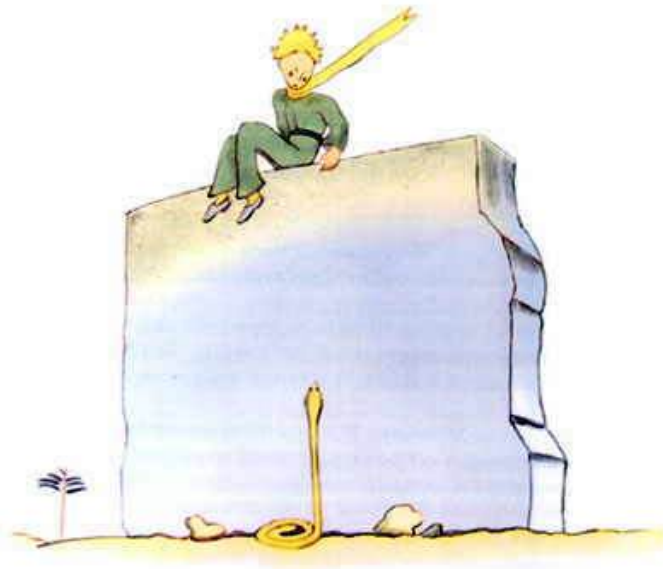
“You have good poison? You are sure that it will not make me suffer too long?”

나는 조바심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

I stopped in my tracks, my heart torn asunder; but still I did not understand.

“그럼 이제 가 봐.” 그가 말했다. “내려가게!”

“Now go away,” said the little prince. “I want to get down from the wall.”



그래서 나도 담벼락 아래를 내려다보다 기겁을 하고 말았 다! 거기에는 삼십 초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었다.

I dropped my eyes, then, to the foot of the wall — and I leaped into the air. There before me, facing the little prince, was one of those yellow snakes that take just thirty seconds to bring your life to an end.

## 어린 왕자

권총을 꺼 내려 호주머니를 뒤지며 곧장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소리에 그 뱀은 분수대 물줄기 꺼지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 가벼운 쇠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담벼락에 이른 그 순간 나는 그저 눈처럼 창백한 내 어린 친구를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젠 뱀하고도 말을 다 하고!”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그 금빛 머플러를 풀어 주었다. 관자놀이를 물로 적혀 주고 물을 먹여 주었다. 그러나 그럼 이제 가 봐. 내려가게!” 그가 말했다. 감히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 보다 내 목을 두 팔로 껴안았다. 카빈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 가슴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기뻐. 비행기 고장 난 데를 알아냈으니. 아저씬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천만다행으로 수리에 성공했다고 말해주려던 참인데 이렇게 말하다니!

내 물음에는 아랑곳없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우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Even as I was digging into my pocked to get out my revolver I made a running step back. But, at the noise I made, the snake let himself flow easily across the sand like the dying spray of a fountain, and, in no apparent hurry, disappeared, with a light metallic sound, among the stones.

I reached the wall just in time to catch my little man in my arms; his face was white as snow.

“What does this mean?” I demanded. “Why are you talking with snakes?”

I had loosened the golden muffler that he always wore. I had moistened his temples, and had given him some water to drink. And now I did not dare ask him any more questions. He looked at me very gravely, and put his arms around my neck. I felt his heart beating like the heart of a dying bird, shot with someone’s rifle...

“I am glad that you have found what was the matter with your engine,” he said. “Now you can go back home — ”

“How do you know about that?”

I was just coming to tell him that my work had been successful, beyond anything that I had dared to hope.

He made no answer to my question, but he added:

“I, too, am going back home today...”

Then, sadly —

## The Little Prince

“내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기도 하고...”

“It is much farther... It is much more difficult...”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 안듯이 품에 안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깊은 구멍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I realized clearly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as happening. I was holding him close in my arms as if he were a little child; and yet it seemed to me that he was rushing headlong toward an abyss from which I could do nothing to restrain him...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득한 곳을 바라보았다.

His look was very serious, like some one lost far away.

“나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 둘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I have your sheep. And I have the sheep’s box. And I have the muzzle...”

그러고는 우수어린 미소를 지었다.

And he gave me a sad smile.

나는 오래 기다렸다. 점차 그의 몸이 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I waited a long time. I could see that he was reviving little by little.

“얘야, 무서웠던 게로구나...”

“Dear little man,” I said to him, “you are afraid...”

물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며시 웃었다.

He was afraid, there was no doubt about that. But he laughed lightly.

“오늘 저녁이 더 무서울걸...”

“I shall be much more afraid this evening...”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 하리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그 웃음은 내게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Once again I felt myself frozen by the sense of something irreparable. And I knew that I could not bear the thought of never hearing that laughter any more. For me, it was like a spring of fresh water in the desert.

“꼬마 친구,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Little man,” I said, “I want to hear you laugh again.”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But he said to me:

## 어린 왕자

“오늘 밤으로 꼭 일 년 됐어.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내가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에 오게 될 거야...”

“Tonight, it will be a year... My star, then, can be found right above the place where I came to the Earth, a year ago...”

“얘야,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아니니...”

“Little man,” I said, “tell me that it is only a bad dream — this affair of the snake, and the meeting-place, and the star...”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But he did not answer my plea.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He said to me, instead: “The thing that is important is the thing that is not seen...”

“물론이지...”

“Yes, I know...”

“꽃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고 치자고.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감미로울 거야. 별마다 꽃이 필 테니.”

“It is just as it is with the flower. If you love a flower that lives on a star, it is sweet to look at the sky at night. All the stars are a-bloom with flowers...”

“물론이지...”

“Yes, I know...”

“물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랑 밧줄 때문에...기억하지...참 좋았잖아.”

“It is just as it is with the water. Because of the pulley, and the rope, what you gave me to drink was like music. You remember — how good it was.”

“그럼...”

“Yes, I know...”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리킬 수 없어. 그게 더 잘된 거지. 내 별은 아저씨한테 여러 별 중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럼 아저씨한테 어느 별을 봐도 돼... 별마다 아저씨 친구가 되겠지. 그리고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 할게...”

“And at night you will look up at the stars. Where I live everything is so small that I cannot show you where my star is to be found. It is better, like that. My star will just be one of the stars, for you. And so you will love to watch all the stars in the heavens... they will all be your friends. And, besides, I am going to make you a present...”

그는 다시 웃었다.

He laughed again.

## The Little Prince

“아, 꼬마 친구야, 꼬마 친구야,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구나!”

“Ah, little prince, dear little prince! I love to hear that laughter!”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물도 그렇고...”

“That is my present. Just that. It will be as it was when we drank the water...”

“무슨 말이야?”

“What are you trying to say?”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별은 아니지. 여 행자에게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작은 불 빛에 지나지 않고. 또 다른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말이 없지.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곤 좀 다를 거야...”

“All men have the stars,” he answered, “but they are not the same things for different people. For some, who are travelers, the stars are guides. For others they are no more than little lights in the sky. For others, who are scholars, they are problems. For my businessman they were wealth. But all these stars are silent. You — you alone — will have the stars as no one else has them — ”

“무슨 뜻이니?”

“What are you trying to say?”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어느 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

“In one of the stars I shall be living. In one of them I shall be laughing. And so it will be as if all the stars were laughing, when you look at the sky at night... You — only you — will have stars that can laugh!”

그러고는 다시 웃었다.

And he laughed again.

“그래서 슬픔이 가시면(슬픔은 언젠가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 언제까지나 친구로 남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 그래서 가끔 괜히 창문을 열어 놓겠지...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무척 놀라겠지.

“And when your sorrow is comforted (time soothes all sorrows) you will be content that you have known me. You will always be my friend. You will want to laugh with me. And you will sometimes open your window, so, for that pleasure...”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게 되지!’ 그들은 아저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And your friends will be properly astonished to see you laughing as you look up at the sky! Then you will say to them, ‘Yes, the stars always make me laugh!’ And they will think you are crazy. It will be a very shabby trick that I shall have played on you...”



## 어린 왕자

그리고는 다시 웃었다.

And he laughed again.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 무더기를 아저씨에게 준 셈이 되는 거지...”

“It will be as if, in place of the stars, I had given you a great number of little bells that knew how to laugh...”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곧 진지하게 말했다.

And he laughed again. Then he quickly became serious:

“오늘 밤은...알지...오면 안 돼.”

“Tonight — you know... Do not come.”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I shall not leave you,” I said.

“난 아파 보일 거야...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늘 그래.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I shall look as if I were suffering. I shall look a little as if I were dying. It is like that. Do not come to see that. It is not worth the trouble...”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I shall not leave you.”

그러나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But he was worried.

“내가 이런 말 하는 건...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뱀은 심술쟁이야. 괜히 물기도 해...”

“I tell you — it is also because of the snake. He must not bite you. Snakes — they are malicious creatures. This one might bite you just for fun...”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I shall not leave you.”

그러나 무엇인가 그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But a thought came to reassure him:

“사실 두 번째 물 땀 독이 없대...”

“It is true that they have no more poison for a second bite.”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잔걸음으로 매몰차게 걷고 있었다.

That night I did not see him set out on his way. He got away from me without making a sound. When I succeeded in catching up with him he was walking along with a quick and resolute step. He said to me merely:

## The Little Prince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어! 아저씨 왔네...”

“Ah! You are there...”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괴로워했다.

And he took me by the hand. But he was still worrying.

“아저씨가 잘못된 거야. 마음 아플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It was wrong of you to come. You will suffer. I shall look as if I were dead; and that will not be true...”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I said nothing.

“알지. 거긴 너무 멀거든.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겁거든.”

“You understand... it is too far. I cannot carry this body with me. It is too heavy.”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I said nothing.

“몸이란 벗어 제친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

“But it will be like an old abandoned shell. There is nothing sad about old shells...”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I said nothing.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기운을 차렸다.

He was a little discouraged. But he made one more effort:

“멋있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은 모두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야...”

“You know, it will be very nice. I, too, shall look at the stars. All the stars will be wells with a rusty pulley. All the stars will pour out fresh water for me to drink...”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I said nothing.

“얼마나 재미있겠어! 아저씨 오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오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

“That will be so amusing! You will have five hundred million little bells, and I shall have five hundred million springs of fresh water...”

그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으니까...

And he too said nothing more, because he was crying...

어린 왕자

“여기야. 한 발짝만 걷게 내버려 둬.”

“Here it is. Let me go on by myself.”



그러더니 그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앉았다.

And he sat down, because he was afraid.



그가 다시 말했다.

Then he said, again:

“아저씨...내 꽃 말인데...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 나 그 꽃은 몹시도 약해! 몹시도 순진하고, 고작 별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로 세상과 맞서 몸을 지키려 하고...”

“You know — my flower... I am responsible for her. And she is so weak! She is so naïve! She has four thorns, of no use at all, to protect herself against all the world...”

## The Little Prince

나는 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I too sat down, because I was not able to stand up  
any longer.

“자...이제 끝났어...”

“There now — that is all...”

어린 왕자는 좀 더 망설이다 다시 일어섰다.  
한 걸음을 내 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  
다.

He still hesitated a little; then he got up. He took  
one step. I could not move.

그의 발목에서 한 줄기 노란빛이 반짝거렸  
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가 서 서히 쓰러  
졌다, 나무가 쓰러지듯. 모래밭이라 소리도  
나지 않았다.

There was nothing but a flash of yellow close to his  
ankle. He remained motionless for an instant. He  
did not cry out. He fell as gently as a tree falls.  
There was not even any sound, because of the  
sand.



어린 왕자

## X XVII

이제는, 물론, 벌써 육년 전 일이 되었다... 아직까지 누구 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 가 살아 돌아 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으나 그들에겐 그냥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이제는 슬픔도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 완전히 가라 앉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떴을 때 그의 몸뚱이를 볼 수 없었으니까. 그리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었지... 그래서 밤이면 즐겨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마치 오 억 개의 방울 같은 별들...

그런데 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린 왕자에게 그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살며시 넘어졌다. 러 준 부리망에 가죽 끈 달아 주는 걸 깜박 잊은 것이다! 어린 왕자가 그걸 양에게 씹어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양이 꽃을 먹어 버 렸으려나...’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뿔개 안에 모셔 두고 양을 잘 감시하겠지...’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별들 모두 다정하게 웃는다.

## XXVII

And now six years have already gone by... I have never yet told this story. The companions who met me on my return were well content to see me alive. I was sad, but I told them: “I am tired.”

Now my sorrow is comforted a little. That is to say — not entirely. But I know that he did go back to his planet, because I did not find his body at daybreak. It was not such a heavy body... and at night I love to listen to the stars. It is like five hundred million little bells...

But there is one extraordinary thing... when I drew the muzzle for the little prince, I forgot to add the leather strap to it. He will never have been able to fasten it on his sheep. So now I keep wondering: what is happening on his planet? Perhaps the sheep has eaten the flower...

At one time I say to myself: “Surely not! The little prince shuts his flower under her glass globe every night, and he watches over his sheep very carefully...” Then I am happy. And there is sweetness in the laughter of all the stars.

## The Little Prince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어쩌다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럼 끝장나지! 어느 날 저녁 유리뿔개를 잊어버리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가 거나 하면...’ 그러면 방울들 모두 눈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에게나 나에게나.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낫선 양 한 마리가 한 떨기 장미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온통 변해 버리니...

하늘을 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삼라만상이 얼마나 달라지 는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 누구도 이해 하지 못하리니!

이 그림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 풍경과 같은 그림이 지만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주고자 다시 한 번 그 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 이 여기다.

But at another time I say to myself: “At some moment or other one is absent-minded, and that is enough! On some one evening he forgot the glass globe, or the sheep got out, without making any noise, in the night...” And then the little bells are changed to tears...

Here, then, is a great mystery. For you who also love the little prince, and for me, nothing in the universe can be the same if somewhere, we do not know where, a sheep that we never saw has — yes or no? — eaten a rose...

Look up at the sky. Ask yourselves: is it yes or no? Has the sheep eaten the flower? And you will see how everything changes...

And no grown-up will ever understand that this is a matter of so much importance!

This is, to me, the loveliest and saddest landscape in the world. It is the same as that on the preceding page, but I have drawn it again to impress it on your memory. It is here that the little prince appeared on Earth, and disappeared.



## 어린 왕자

언제고 당신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자신 있게 이 풍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유심히 봐 두시길. 그리고 혹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부디 서두르지 말고 잠시라도 별 밑에서 기다려 주시길!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은 금빛이고,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면 당신은 그의 정체를 알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날 이토록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로 편지를 보내 주시길. 어린 왕자가 돌아왔 노라고...

1943

Look at it carefully so that you will be sure to recognize it in case you travel some day to the African desert. And, if you should come upon this spot, please do not hurry on. Wait for a time, exactly under the star.

Then, if a little man appears who laughs, who has golden hair and who refuses to answer questions, you will know who he is. If this should happen, please comfort me. Send me word that he has come back.

1943



Больш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https://bilinguator.com)  
More bilingual books on [bilinguator.com](https://bilinguator.com)  
Więcej dwujęzycznych książek na [bilinguator.com](https://bilinguator.com)  
Больше книг-билингв на [bilinguator.com](https://bilinguator.com)  
Більше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https://bilinguator.com)

2024